

海外 貿易館에서 바라본
2004년도 輸出展望

2003. 12

K O T R A

통상전략팀

目 次

I. 海外貿易館에서 본 輸出展望 要旨

II. 海外 地域本部別 輸出展望

1. 北美 地域
2. 歐洲地域
3. 아시아・大洋洲 地域
4. 日本 地域
5. 中華圈 地域
6. CIS 地域
7. 中東 地域
8. 아프리카 地域

1. 總 論

내년도 총수출 2,170억불, 금년대비 12.4% 증가 전망

- 내년 중 세계경제는 미국, 유럽, 일본의 경기회복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견실한 성장 지속으로 본격적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전망
 - 세계 경제전망 : ('03) 2.0% → ('04) 3.0% (OECD '03. 11)
('03) 2.6% → ('04) 3.9% (IMF '03. 09)
('03) 2.4% → ('04) 3.2% (SERI '03. 09)
 - 세계 교역증가율 : ('03) 4.0% → ('04) 7.8% (OECD '03. 11)
('03) 2.9% → ('04) 5.5% (IMF '03. 9)
('03) 4.3% → ('04) 6.1% (SERI '03. 9)
- 따라서,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는 2004년도에도 사상 최초의 2,000억불 수출시대 개막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2004년 한국 경제성장율 : 4.75% (OECD '03. 11)
5.5% (산업연구원 '03. 11)

2004년도 수출 전망치

(단위: US\$ 억, %)

2002	2003(추정)	2004(전망)
1,625	1,930(18.8)	2,170(12.4)

2. 主要 圏域別 展望

□ 지역본부 주재 권역별 전망

○ 중국, CIS는 수출 증가세 지속

- 중국지역 : 고도 경제성장 지속, WTO 가입 효과 지속, 북경 올림픽, 상해 엑스포 등 대형 국책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특수, 외투기업부문의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2004년도에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CIS : 전반적인 경기여건은 좋지만, 국제유가의 하향세에 따른 수입규모 감소 등으로 대러 수출 증가세는 둔화 전망

○ 북미·중남미지역은 수출증가 회복세 전망

- 북미지역 : 뚜렷한 경기회복, 감세정책 효과, 대선에 따른 재정 지출확대 등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전망이며,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의 수출증가 지속전망에 따라 수출 회복 전망
- 중남미 : 주력시장인 멕시코, 브라질 등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대중남미 수출 전반적 증가 기대

○ 일본, 유럽, 아시아·대양주,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수출 증가율 크게 둔화 전망

- 일본 : 제반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경기회복은 기대되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어 획기적인 수입수요 증가는 기대 곤란 상황
- 구주지역 : 경기회복, 중·동구 EU 편입, 유로화 강세 지속 등 여건은 호조이나 최대 수출시장 독일의 경기불안이 걸림돌

- 아시아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 확대 및 심화에 따른 역내 교역 활성화, 인도, 파키스탄 등의 정정불안 지속, 대인도 特需요인 진정세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낮아질 전망
- 대양주 : 뉴질랜드는 경기 호전으로 수출증가세 지속 전망이나, 호주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의 수출부진 전망 등으로 수출증가세 크게 둔화 전망
- 중동 :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이라크 치안불안 지속,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의 분쟁악화 가능성 등으로 대폭적인 수출 증가기대는 난망
- 아프리카 : 정정불안, 만성적인 외화부족, 후진적인 금융시스템에 따른 외환불안으로 수출증가는 보합세 전망

지역본부 주재 지역별 수출전망

(단위: US\$ 백만, %)

지역별	2002	2003	2004
북미지역	35,121	36,527 (4.0)	38,870 (6.4)
구주지역	25,717	29,709 (15.5)	31,677 (6.6)
아대지역	25,083	29,904 (19.2)	31,483 (5.3)
일본지역	15,143	17,141 (13.2)	18,090 (5.5)
중화지역	40,531	56,810 (40.2)	71,536 (25.9)
중남미지역	9,044	9,065 (0.2)	10,581 (16.7)
CIS지역	1,679	2,292 (36.5)	2,775 (21.1)
중아지역	10,152	11,643 (14.7)	12,010 (3.2)
합 계	162,470	193,091 (18.8)	217,022 (12.4)

□ 對 수출순위 상위 20개국 내년도 수출 전망

○ 수출 증가율은 금년 대비 보합세 또는 둔화 전망

-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도 상반기중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기대
- 미국·일본·유럽권 등 선진국권은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확대 될 전망이나 원화 환율불안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 예상
- 중국 등 신흥시장 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대 인도 수출은 금년중 무선통신기기 特需와 같은 요인이 없는 한 완만한 증가세 시현 전망

수출순위 상위 20대 시장 수출전망

(단위: US\$ 백만, %)

순위	국별	2002	2003	2004
1	중국	23,753	36,010(51.6)	49,536(37.6)
2	미국	32,780	33,925(3.5)	36,060(6.3)
3	일본	15,143	17,141(13.2)	18,090(5.5)
4	홍콩	10,146	13,800(36.0)	14,800(7.2)
5	대만	6,632	7,000(5.5)	7,200(2.9)
6	독일	4,287	5,145(20.0)	5,556(8.0)
7	영국	4,255	4,411(3.7)	4,681(6.1)
8	싱가포르	4,222	4,412(4.5)	4,632(5.0)
9	말레이시아	3,218	3,604(12.0)	4,072(13.0)
10	인도네시아	3,145	3,475(10.5)	3,595(3.5)
11	호주	2,339	3,050(30.4)	3,200(4.9)
12	멕시코	2,231	2,700(21.0)	3,132(16.0)
13	인도	1,384	2,910(110.3)	3,100(6.5)
14	네덜란드	2,567	2,618(2.0)	3,011(15.0)
15	베트남	2,240	2,700(20.5)	2,900(7.4)
16	필리핀	2,950	2,802(△5.0)	2,886(3.0)
17	캐나다	2,341	2,602(11.1)	2,810(8.0)
18	태국	2,335	2,470(5.8)	2,729(10.5)
19	이태리	2,217	2,527(14.0)	2,653(5.0)
20	아랍에미리트	2,269	2,224(△2.0)	2,201(△1.0)

3. 主要 商品別 輸出 展望

□ 12대 주종 수출상품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2003년도보다 수출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품질 및 기술집약 제품 중심으로 수출총액은 대폭 증가할 전망
-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철강제품, 석유화학, 컴퓨터, 자동차, 산업기계 분야에서 두 자리 수출 증가율 시현 전망
 - 반도체 : 설비투자 지연상황 하에 수요증가로 공급부족 전망
 - 무선통신기기 : 기술력과 품질로 인지도 향상
 - 자동차 : 新車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신규수요 창출 가능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단위: US\$ 백만, %)

품목별	2002	2003(추정)	2004(전망)
산업기계	4,132	5,365 (29.8)	6,482 (20.8)
자동차	14,426	17,229 (19.4)	20,175 (17.1)
선박	7,478	8,864 (18.5)	8,641 (△2.5)
철강제품	7,008	9,176 (30.9)	11,808 (28.7)
석유화학	8,863	11,574 (30.6)	13,636 (17.8)
정밀화학	2,886	3,193 (10.6)	3,453 (8.1)
직물	8,530	8,170 (△4.2)	7,930 (△2.9)
섬유제품	4,931	4,465 (△9.5)	4,085 (△8.5)
컴퓨터	12,681	14,835 (16.9)	17,191 (15.9)
무선통신기기	13,361	19,848 (48.6)	26,890 (35.5)
반도체	16,532	21,078 (27.5)	25,645 (21.7)
가전제품	10,428	12,026 (15.3)	13,129 (9.2)

4. 國家別 輸出展望

권역별	국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북미 지역	미 국	32,780	33,925(3.5)	36,060(4.2)
	캐나다	2,341	2,602(11.1)	2,810(8.0)
	소 계	35,121	36,527(4.0)	38,870(6.4)
구주 지역	그리스	1,653	1,835(11.0)	1,991(8.5)
	네덜란드	2,567	2,618(2.0)	3,011(15.0)
	노르웨이	377	660(75.1)	670(1.5)
	덴마크	292	316(8.2)	346(9.5)
	독 일	4,287	5,145(20.0)	5,556(8.0)
	루마니아	160	175(9.4)	201(14.9)
	벨기에	800	1,250(56.3)	1,150(△ 8.0)
	불가리아	28	44(57.1)	53(20.5)
	스웨덴	395	530(34.2)	610(15.1)
	스위스	449	500(11.4)	600(20.0)
	스페인	1,552	1,862(20.0)	2,141(15.0)
	아일랜드	560	660(17.9)	550(16.7)
	영 국	4,255	4,411(3.7)	4,681(6.1)
	오스트리아	397	340(△ 14.4)	310(8.8)
	이태리	2,217	2,527(14.0)	2,653(5.0)
	체 코	109	172(57.8)	200(16.3)
	크로아티아	61	51(△ 16.4)	57(11.8)
	터 키	865	1,100(27.2)	1,170(6.4)
	포르투갈	228	230(0.9)	238(3.5)
	폴란드	349	359(2.9)	398(10.9)
	프랑스	1,629	1,740(6.8)	1,863(7.1)
	핀란드	706	844(19.5)	874(3.6)
	헝가리	363	540(48.8)	600(11.1)
	기 타	1,418	1,800(26.9)	1,754(△ 2.6)
	소 계	25,717	29,709(15.5)	31,677(6.6)

권역별	국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아시아 대양주 지 역	싱가포르	4,222	4,412(4.5)	4,632(5.0)
	태국	2,335	2,470(5.8)	2,729(10.5)
	말레이시아	3,218	3,604(12.0)	4,072(13.0)
	인도네시아	3,145	3,475(10.5)	3,595(3.5)
	필리핀	2,950	2,802(△ 5.0)	2,886(3.0)
	베트남	2,240	2,700(20.5)	2,900(7.4)
	미얀마	143	155(8.4)	140(9.7)
	캄보디아	115	115(0.0)	135(17.4)
	인 도	1,384	2,910(110.3)	3,100(6.5)
	방글라데시	506	531(4.9)	574(8.1)
	파키스탄	405	446(10.1)	475(6.5)
	스리랑카	304	305(0.3)	326(6.9)
	호 주	2,339	3,050(30.4)	3,200(4.9)
	뉴질랜드	322	462(43.5)	565(22.3)
	기 타	1,455	2,467(69.6)	2,154(12.7)
	소 계	25,083	29,904(19.2)	31,483(5.3)
일본지역	일 본	15,143	17,141(13.2)	18,090(5.5)
	소 계	15,143	17,141(13.2)	18,090(5.5)
중화권 지 역	중 국	23,753	36,010(51.6)	49,536(37.6)
	홍 콩	10,146	13,800(36.0)	14,800(7.2)
	대 만	6,632	7,000(5.5)	7,200(2.9)
	소 계	40,531	56,810(40.2)	71,536(25.9)
중남미 지 역	과테말라	501	516(3.0)	531(2.9)
	도미니카(共)	185	100(△ 45.9)	120(20.0)
	멕시코	2,231	2,700(21.0)	3,132(16.0)
	베네주엘라	247	100(△ 59.5)	150(50.0)
	브라질	1,247	1,152(△ 7.6)	1,271(10.3)
	아르헨티나	51	145(184.3)	180(24.1)
	우루과이	34	42(23.5)	60(42.9)
	칠 레	454	514(13.2)	579(12.6)
	코스타리카	111	85(△ 23.4)	100(17.6)
	콜롬비아	272	258(△ 5.1)	297(15.1)
	파나마	1,184	1,208(2.0)	1,268(5.0)
	페 루	196	200(2.0)	220(10.0)
	기 타	2,331	2,045(12.3)	2,673(30.7)
	소 계	9,044	9,065(0.2)	10,581(16.7)

권역별	국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CIS지역	러시아	1,065	1,385(30.0)	1,662(20.0)
	우즈베크스탄	188	197(4.8)	207(5.1)
	우크라이나	220	370(68.2)	495(33.8)
	기 타	206	340(65.0)	411(20.9)
	소 계	1,679	2,292(36.5)	2,775(21.1)
중 동 아프리카 지 역	나이지리아	687	637(△ 7.3)	798(25.3)
	南阿共	394	499(26.6)	558(11.8)
	레바논	64	69(7.8)	76(10.1)
	리비아	323	140(△ 56.7)	147(5.0)
	모로코	95	120(26.3)	133(10.8)
	사우디아라비아	1,258	1,340(6.5)	1,380(3.0)
	시리아	298	260(△ 12.8)	250(△ 3.8)
	아랍에미리트	2,269	2,224(△ 2.0)	2,201(△ 1.0)
	알제리	186	227(22.0)	262(15.4)
	오 만	102	102(0)	102(0)
	요르단	195	295(51.3)	250(△ 15.3)
	이라크	86	290(237.2)	523(80.3)
	이 란	1,227	1,550(26.3)	1,328(14.3)
	이스라엘	501	570(13.8)	630(10.5)
	이집트	321	400(24.6)	440(10.0)
	케 나	45	49(8.9)	52(6.1)
	쿠웨이트	183	367(100.5)	550(49.9)
	기 타	1,918	2,504(30.6)	2,330(6.9)
	소 계	10,152	11,643(14.7)	12,010(3.2)
합 계		162,470	193,091(18.8)	217,022(12.4)

北美 地域

1. 수출 여건

가. 낙관적 요인

- 2004년 미국 연 경제성장률 4%대 추정
 - 스노우 재무장관, 미 경제 내년 연간 3.8~4%의 성장 예상
 - 2003. 3/4분기 경제성장률 8.2%로 20년만에 최고치 기록
 -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확대 추세
- 경기회복 기대심리, 감세 등이 소비지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속적인 경제부양 정책 실시 예상
- 소비수요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고용시장 회복세
- 대미 주종 수출상품 (자동차, 핸드폰, 디지털 가전제품)수요 증가
- 캐나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유지
 - 저금리 정책과 지출위주의 예산안 편성으로 경기부양책 유지
- 캐 달러의 가치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강화

나. 비관적 요인

- 지속적인 원화절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악화
 - 위안화 저평가로 미국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
 - 섬유, 의류 등 경공업 제품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계류,

전자제품 등에서도 중국산에 밀리는 추세

-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서도 가격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중국·대만제품과의 가격경쟁이 치열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예상
- 기준이자율의 인상(현재 1%)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지출 감소 위험
- 연방정부 재정적자 확대 (5,000억 달러 예상)
 - 이라크 재건 및 국토방위비 예산 증대가 경제회복 걸림돌
- 미 소비자 부채 증가 및 이자율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억제 가능성
 - 소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GDP)의 2/3
 - 부양자녀들에 대한 세금환불, 모기지 채융자 등을 통해 소비자 지출은 3/4분기 연 6% 증가(전년 동기대비 1.5배 초과)
 - 7월 소비자 부채는 전월대비 60억 달러 증가 (1조 7,740억불)
- 캐나다貨 환율 강세에 따른 수출력 약화로 경제성장 미미 전망
- 수출 경쟁의 심화
 - 전자제품, 컴퓨터, 철강, 의류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 멕시코 등 후발 국가들의 추격으로 수출여건 악화

2. 수출 전망

가. 총괄표

(단위 : US\$백만, %)

국 가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북미지역	35,121 (5.6)	36,527 (4.0)	38,870 (6.4)

나. 전망 근거

1) 밝은 면

-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 주요 대미 주종 수출
상품의 지속적 시장 확대 전망
- 경기회복 기대심리로 소비지출 증가 전망
- 우리나라 상품 인지도 상승 및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 의지 확산
- 캐나다 소비시장 활성화
 - 캐나다 경제의 회복은 소비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환율강세에
따른 구매력 강화로 수입 수요가 확대 가능
- 주력 수출품목 호조세 지속
 - 한국산 자동차, 전자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주력 품목의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타이어,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등 관련
품목들도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수출 증가 기대
- 한국제품의 인지도 향상

- 한국산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다른 한국산 제품들의 이미지까지 파급 효과 기대

2) 어두운 면

- 지속적인 원화절상이 수출의 최대 장애 요인
- 선거를 앞둔 부시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 강화로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경우, 국내업체들은 타 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미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 전망
- 무역적자 확대에 의한 미국의 대외 통상압력 강화 예상
 - 미국의 2002년 무역적자는 4,683억불로 사상 최고 기록
 - 2003년에도 적자액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압력 가능성 상존
 - 2003년 8월까지 미국 무역수지 적자액의 42.1%가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등 동아시아 5개국에서 발생

(단위 : 억불, %)

구 분	2002년		2003. 1~8월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중국	1,031	22.0	770	22.1
일본	700	14.9	430	12.4
대만	138	2.9	96	2.8
말레이시아	137	2.9	93	2.7
한국	130	2.8	76	2.2
소계	2,135	45.6	1,465	42.1
기타국가	2,548	54.4	2,013	57.9
총 계	4,683	100.0	3,478	100.0

- 환율변동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따라 일본산 원자재 수입과 중국과의 수출경쟁에서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 중국은 섬유, 가전제품 등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낮은 가격으로 미국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

○ 캐나다 수입시장의 제한적인 확대

- 통화 강세에 따라 구매력은 확대되나 수출경쟁력 약화를 통한 경제 성장 저해 효과에 따라 수입시장의 확대가 제한될 가능성

○ 원화 절상 및 운송비 상승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

- 원화 절상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와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이 수출 확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후발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 중국, 멕시코 등 후발국가들의 품질 향상과 저가로 인해 철강, 가전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의류 등 우리의 수출 주종 품목의 경쟁 심화

○ 주력품목 수출 불안 요인 존재

-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들 품목이 부진할 경우 전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짐 (2002년 현재 82%)
- 자동차 수요시장 포화상태 및 경쟁 휴대폰업체들의 신규 기종 소개 등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불안 요인 존재

다. 종합 의견

- 내년도 미국 경제전망은 낙관과 비관적 전망이 혼조되어 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3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다소 기복은 있겠지만 내년에는 적어도 금년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美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인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대한 수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주력상품인 반도체, 컴퓨터, 승용차 등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대미수출이 증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디지털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가전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대한 수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가전 시장의 경우 기술 혁신으로 인한 가격 하락, 제품의 경박 단소화 등 일반 소비자들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금년에 비해 대미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
-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인한 민간투자 및 소비지출이 증가,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 원화가치의 불안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상쇄하는 부정적인 요인 상존
 - 내년에도 지속적인 원화절상이 예상되며, 특히 중국의 위안화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산이 중국산에 더욱 밀릴 것으로 전망
 - 최근 중국은 독일, 이태리 등 서방선진국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기계류, 전자제품 등 일부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해서도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상대로 부각
-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업체 지원노력, 업계의 경쟁력 제고, 수출 지원기관의 유효적절한 시장진출 지원 노력이 힘을 발휘한다면 2004년도 對美 교역확대 여건은 2003년에 비해 상당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가. 총 괄 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실적(증감율)	2003추정(증감율)	2004전망(증감율)
산업기계(72)	399 (△13.3)	507 (27.1)	586 (15.6)
자동차(741)	7,804 (18.7)	8,918 (14.3)	9,964 (11.7)
선박(7461)	4 (△19.6)	61 (1392.7)	70 (14.9)
철강제품(61)	1,051 (△16.5)	945 (△10.1)	965 (2.1)
석유화학(21)	403 (△10.8)	411 (2.0)	447 (8.8)
정밀화학(22)	261 (△3.3)	268 (2.7)	280 (4.5)
직물(43)	909 (13.6)	810 (△10.9)	713 (△12.0)
섬유제품(44)	2,412 (△5.6)	2,060 (△14.6)	1,724 (△16.3)
컴퓨터(813)	2,965 (△9.0)	2,280 (△23.1)	2,398 (5.2)
무선통신기기(812)	4,000 (1.3)	5,334 (33.4)	6,452 (21.0)
반도체(831)	3,735 (9.5)	3,395 (△9.1)	4,006 (18.0)
가전제품(82)	2,693 (24.0)	2,694 (0.0)	2,929 (8.7)

나. 총 괄 표 (B)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추정)	2004(전망)
자동차부품(742)	856 (25.5)	984 (15.0)	1,271 (29.2)
타이어(3203)	503 (32.7)	540 (7.4)	662 (22.6)

다.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1) 산업기계

- 그동안 미국 경기의 극심한 기계수요 침체로 인해 국산 기계의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내구성 소비재 주문이 증가하는 등 2004년도 제조업 경기전망은 밝은 편임

- 다만, 국산 기계제품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 대만산 제품의 대미 수출 및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이들 국가 제품과의 힘겨운 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원화 강세에 따른 대미 수출 부담이 중소 기계 제조업체에게 최대 수출 장애요인으로 대두

2) 자동차

- 미국내 자동차 판매 증가 전망 : 1,670만대(2003년) → 1,700만대(2004년)
- 현대자동차 2004 하반기 SUV 신차 출시로 3만~4만대 추가판매 예상
 - 41만대 판매(2003년) → 44만대 판매(2004년)

3) 선 박

- 기 확보된 선박 수주물량의 인도기한 도래로 대미 수출실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2002년 상반기 중 국제 선박 발주량이 57% 감소하였으며, 국제 선박시황이 좋지 않아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대미 선박 수주실적이 다소 부진하며, 수주에서 인도까지 1~3년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 할 때 2004년 대미 선박 수출실적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

4) 철강제품

- 벌크 운임 인상 최대 난제 : 톤당 25불-30불 인상
 - 배선 부족 및 운임 단가 인상으로 기존 주문까지 취소해야 입장

- 미 철강 업체에서는 금년 4월부터 2개월 단위로 톤당 10-15달러 가량의 철강가격을 인상하고 있어 H빔의 경우 내년도 주문을 받기 위해 11월경에 오퍼를 내야하나 선임 인상이라는 악재로 인해 오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칫 내년 상반기 수출도 어려워질 전망

○ 수입규제 지속여부가 관심사

- 201조를 유지 할 경우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하며 이를 철폐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2005년 3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스테인레스 강관 수출 회복 전망

- H사의 경우 seamless stainless steel의 금년도 수출은 2002년도 대비 50%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2004년도에는 60-70% 수준까지 회복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는 주택경기의 지속적인 호황 및 그간 부진했던 사회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5) 석유/정밀화학

- 화학 분야는 금년도에 원유가 상승, 미국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수출실적이 3.45%나 감소한 채로 마감된 상황
- 현재 미국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고, 미국내에서 화학분야 소비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은 예상되나, 수입보다 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대미수출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6) 식물/섬유제품

- 중국, 베트남과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원화 절상 지속이 예상되어

공급업체가 환율절상분을 떠안지 않는다면 대미수출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우려

- 현지 주재상사에 의하면 2004년도 미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한국산 섬유의 수입은 환율로 인해 오히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소한 달러당 1,200원 수준의 환율을 유지해야 외국업체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특히 한국산 봉제 등 섬유제품에 대한 시장경쟁력은 거의 상실된 것으로 분석

7) 컴퓨터/반도체

- 경기회복, PC 및 소비가전에서의 수요확대 등에 따라 2004년 미국의 반도체 시장은 약 20%정도의 확대가 예상
 - 300mm반도체가 많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5부터 다소 공급과잉 현상 발생 가능성
- 지난 2~3년간 반도체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억제해온 가운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수급균형이 맞거나 공급이 약간 부족한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
- 전반적인 미국 시장수요의 증대와 2003년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2004년 미국 컴퓨터 시장은 소폭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미국시장의 2004년 PC시장은 10%전후의 성장률 예상
 - 내년 중반 MS사의 64비트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출하가 예정되어 있어,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HP-Compaq의 합병으로 상실했던 수주물량을 내년에는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HP, Apple 등 주요 컴퓨터 메이커들이 지속적인 가격 인하를 실시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및 금액기준의 수출실적의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8) 무선통신기기

- 무선통신분야, 특히 휴대폰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력과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서 향후 안정적인 성장이 예측되고 있음
- 미국에서 주류시장인 GSM 시장을 한국기업들이 적극공략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 개발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으로 수출전망은 밝음
- 그러나, 중국 등 후발국들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한국기업의 제품까지 생산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경쟁국들도 W-CDMA와 무선인터넷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방향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중이어서 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성장 전망

4. 수출 유망품목 추천

【미국】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무선전화기 (8121)	국내산 인지도 향상 시장수요 지속 증대 예상	스웨덴, 핀란드, 중국
비디오 카메라 (8214)	소형 콤팩트형 인기 국산 가격과 품질경쟁력 확보	일본
자동차부품 (7420)	미국 자동차 Big3 해외 아웃소싱 확대 추세 한국산 부품에 대한 미국업체의 신뢰도 상승	캐나다, 일본, 멕시코, 독일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플라스틱 금형(7532)	미국기업들의 아웃소싱 추세 확대	대만, 중국
공작기계(723)	경기회복에 따른 신규투자수요 증가	일본, 독일
자동차부품(7420)	완성차 수출증가, 부품수요 증가	중국
플라스틱제품(310)	전반적인 수요증가	중국
영상기기(821)	평면 TV 등 디지털 제품 수요 급증	일본
SUV 차량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의 50% 시장 점유	일본, 미국
H 빔	미국의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 증가 예상 품목	브라질 등
무개목스테인레스강관 컬러강관	선임 인상 가격 이전 비울 낮은 고부가가치제품.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교체수요 발생	일본,미국
장신구 (962000)	귀금속 장식품 (금은 장신구)	이태리, 태국
DVR, RFID 등 보안관련 제품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무선과 결합된 보안시스템도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만, 미국
해양구조물 (7462)	국내 조선사들의 첨단공법 개발로 기술 경쟁력 확보	유럽, 일본
선박용 엔진 및 부품 (7463)	국제 선박시황 불황으로 선박수리, A/S 시장 활기 예상	유럽, 일본
선박용 부품 (7464)	국제 선박시황 불황으로 선박수리, A/S 시장 활기 예상	유럽, 일본
타이어 (승용차용, 320310) (버스트럭용, 320320)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에 의한 브랜드 인지도 확산 미국 완성차업체의 OEM공급 진출로 한국산 타이어의 공급 다변화 가능성 다대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승용차(7411)	품질개선에 대한 인식확산으로 소비자들의 가격대비 품질만족도가 높음. 경쟁차종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일본, 미국, 독일, 멕시코
무선전화기(8281)	사용연령층 하향화 등 수요증가세 지속 한국주력업체의 현지 통신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판매채널 확대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미국, 멕시코, 일본, 중국
타이어(3203)	현지 딜러망 구축확대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구사 UHP타이어 등 고부가가치 타이어매출 비중 증가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자동차부품(7420)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증가세에 따른 교체 수요 증가 Big3 등 주요 메이커 공급노력 확대	미국, 멕시코, 독일 일본, 영국
컴퓨터(8131)	컴퓨터 주변기기(모니터, CD롬 등)에 대한 현지인들의 품질 인정 TFT-LC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 증가세	미국, 멕시코, 대만 일본, 중국
칼라TV(8211)	대형,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호조세 안정적인 현지판매망 구축	미국, 멕시코,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무선통신기기부품(8128)	휴대폰 등 수요증가에 따른 부품 및 액세서리에 수요 증가세	미국, 스웨덴, 멕시코, 대만, 일본

5. 수출확대 전략

☐ 수출품목의 다양화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전자회로, 데이터 처리기기, 기계부품 등으로 상위 5대 품목 수출비중이 전체 對美 수출의 55%를 점유하고 있어, 품목 다변화 시급

- 이들 품목은 경기민감 품목으로 우리나라 내부 사정이나 국제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전체 대미 수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기 비민감 품목으로의 다변화를 통해 對美 수출상품 구조 안정화 필요
- 반도체 이후 대미 수출증대를 주도할 ‘차세대 대표 수출품목’ 개발이 지연될 경우 현재 3%에 머물고 있는 미국시장 점유율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획기적인 수출도약이 곤란한 실정
- 2010년까지 세계 공산품 생산의 80%를 중국이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
- 중국의 전방위적 시장잠식, 국내의 제조품 생산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서는 차세대 대표 수출상품 개발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긴요
- 중국, 일본과의 과다한 경합 수출구조에서 시급히 탈피하여 독자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전략 틈새 품목 적극 발굴, 육성

□ 기존 주력상품 경쟁력 제고 노력

- 독자적 경쟁력 확보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 일본과 중국간의 경합관계가 심해지면서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최근 수년간 3%대에서 정체
 -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심화되면서 전기전자, 기계류 등에서도 경합도 심화
- 미국 소비자에게 한국 제품은 여전히 “독창적인 소재이용 및 디자인 개발이 부족한 제품”으로 인식
 - 가격경쟁력 회복이 어려움을 감안할 때 디자인, 소재 개발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가 유일한 대안

- 최근 성공을 거두고 있는 ‘무선통신 단말기’의 예를 살려, 디자인과 소재 분야 혁신을 위한 기업의 자구노력이 긴요

사례) 수출 재도약 추진

‘원단 수출중심의 섬유산업’ → ‘패션과 디자인을 결합한 섬유패션산업’

-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국집중이 심화되면서, 경공업제품에 이어 전자·전기·기계·컴퓨터 등 기술 집약 제품에서의 대중국 경쟁우위도 점차 축소
- 중장기 국가산업정책 차원에서, 관련제품 기술개발, R&D지원, FDI 유치,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지원 등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적극 지원 필요
- ‘부품산업’은 북미시장에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독자적 경쟁력 창출 여건을 갖춘 최적의 산업임
- ‘부품산업’은 조립산업과는 달리, 단순 저임노동력 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고, 국내 부품업체는 세계수준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축적된 기술력으로, 경쟁국이 넘보기 힘든 가격·품질경쟁력 확보
- 철강, 전자부품 등 일부 원자재 조달 면에서 유리한 위치
- 자동차, 전자제품 등 완제품 수출성가를 바탕으로, 세계적 아웃소싱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공급조건 구비(글로벌 대기업과의 제휴 강화)

□ 틈새시장 공략 강화

- 정부조달, 히스패닉 시장, 물류유통 시장, 부품·소재시장 등에 대한 마케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적극 참여
- 미국 정부조달 시장은 연방과 州정부를 합쳐 총 5천억불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조달 시장
 - 특히, 미국 정부조달 시장은 9.11테러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안장비 등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팽창
 - 우리나라의 미국 정부조달 시장진출 규모는 약 7.5억 달러 수준으로,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의 0.3% 가량 차지
- 미, 최대 소수계로 부상하는 히스패닉계도 중요한 신흥시장
 -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완전히 새로운 수출시장’ 창출도 가능하므로, 미래시장 선점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 필요

歐洲地域

1. 수출 여건

가. 낙관적 요인

- 유로권 경기회복 추세
 - EU 재무장관들은 유로권 경제가 이미 저점을 통과하면서 경기 회복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
 - 경제통화담당 EU 집행위원은 2003년도 유로권 경제 성장률을 0.5%로 예상하면서 2004년도에는 1.5 ~ 2%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EU 동구권 확대로 구매력 확대 효과 기대
 - 중동구 국가의 EU 편입으로 EU와 보완관계에 있는 분야에서 수출시장 확보 가능
- 세계경제의 회복 추세
 -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경제도 회복세
 - 내년에도 4%내외의 성장 달성 예상
 - 일본은 금년중 2~2.5%, 내년중 1.5%내외 성장률 달성 전망

나. 비관적 요인

- EU 국가들의 어려운 고용상황

- 최근 실시된 ‘산업 및 소비자 Survey’에 따르면, 경제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03. 8월중 실업율은 8.8%로서 전년 동기대비 0.3%p 상승

○ EU 확대로 가격경쟁 심화

- 신규 가입국의 EU 편입으로 역내교역 증가와 함께 가격경쟁 심화

○ 소비심리 회복 지연

- 유로권 주요경제지표가 호전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회복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본격적인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내 소비자 실질 구매수요 증가 기대는 난망

2. 수출 전망

가. 총 괄 표

(단위 : US\$백만, %)

국 가	2002 실적(증감율)	2003추정(증감율)	2004전망(증감율)
구주전체	25,717	29,709 (15.5)	31,677 (6.6)

나. 전망 근거

1) 밝은 면

-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개선 추세
 - 핸드폰 등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로 직결
- 유로화 강세가 2004년에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수출에 간접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 수출업체의 현지 마케팅 네트워크가 대폭 강화 추세

2) 어두운 면

- EU의 완만한 경기회복 속도로 본격적인 경기회복 지체
- 섬유, 식물 등 저가제품분야에 대한 중국 및 동남아의 추격
- 중동구 국가의 EU가입으로 수출시장 경쟁 심화

다. 종합 의견

- EU 주요경기 선행지표들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민간소비, 기업투자가 소폭 회복에 머무르고 있어 큰 폭의 수출증가보다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경기회복으로 1.5~2%의 경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여건은 다소 호전될 전망
- IT제품, 자동차, 가전을 포함한 주력상품의 브랜드 밸류 확보 및 국내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유로화 강세 등으로 수출 증가세는 어느 정도 지속 전망
 - 그러나, 중국·동남아산 대비 가격경쟁력 열세, 중동구 국가 EU 편입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요인을 감안하여 수출증대를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 노력 필요

3.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가. 총 괄 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실적(증감율)	2003추정(증감율)	2004전망(증감율)
산업기계(72)	1,171 (5%)	1,305 (11.4%)	1,355 (3.8%)
자동차(741)	3,085 (12%)	4,230 (37.1%)	4,568 (18%)
선박(746)	2,839 (447.5%)	3,235 (14%)	3,494 (8.0%)
철강제품(61)	375 (-5.5%)	620 (65%)	657 (6.0%)
석유화학(21)	575 (28.1%)	675 (17%)	708 (4.8%)
정밀화학(22)	370 (-2.9)	417 (16%)	425 (1.9%)
직물(43)	927 (3%)	937 (2.7%)	930 (-0.8%)
섬유제품(44)	628 (-6%)	616 (-2%)	650 (5.5%)
컴퓨터(813)	2,295(-1.4)	3,287 (37%)	3,524 (7.2%)
무선통신기기(812)	2,162(68.2%)	3,210 (16.5%)	3,566 (11.1%)
반도체(831)	2,124(2%)	4,673 (17.1%)	5,056 (8.2%)
가전제품(82)	2,015(3.3%)	3,154 (18.6)	3,419 (8.4%)

주) 우리나라 12대 수출 주력 품목

나. 총 괄 표 (B)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타이어 (3203)	298 (8.9%)	492 (65%)	544 (10.5%)
플라스틱제품(310)	238 (16.1%)	299 (25.6%)	312 (4.3%)
자동차부품(742)	385(26%)	536 (39%)	598 (11.5%)

다.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1) 자동차

- 국내기업의 적극적 마케팅과 홍보활동으로 유럽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확보
 - 소형차·RV 차량 등 차종 다양화로 소비자 계층 확대

2) 무선통신기기

- 핸드폰 사용인구 증가, 현지 국내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한국산 핸드폰 수요 급증

3) 철강제품

-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시장에서 국내제품 수요증가
-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구조 개선

4) 타이어

- 한국산 자동차 판매증가에 따른 타이어 수요 동반 증가
- 네덜란드내 유럽 물류센터를 통한 수출입 물량 증대

5) 섬유·직물

- 저가 중국산 및 동남아산 유입증가와 가격경쟁 심화로 인해 바이어들이 중국 수입선으로 전환하고 있어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

6) 반도체

- 상계관세 부과에 따른 후풍효과로 수출은 당분간 감소 전망

7) 선 박

- EU의 조선산업 규제강화 움직임으로 선박 수출에 애로

8) 자동차 부품

- 전자장치(카오디오 시스템) 및 소모품(에어필터)의 시장 형성기
 - 자동차 수출증가의 시너지 효과로 부품 수출 동반 상승효과

4. 수출 유망품목 추천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자동차부품 (7420)	○ 한국산 자동차 점유율의 꾸준한 상승으로 부품수요 동반증가 ○ 독일 등 자동차 메이커들의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부품의 아웃소싱 추세 증가	독일,일본,프랑스,이태리
디지털 카메라 (852540)	○ 국내제품의 다기능 신제품 등 품질향상으로 소비자의 구매욕구 자극	일본,대만,독일
컬러TV (8211)	○ 평면TV 분야 기술, 가격경쟁력 보유 및 브랜드 이미지 확보 ○ LCD, PDP 대형화면 TV 시장성숙	일본,대만,중국
에어컨 (8242)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수요급증 전망	일본,대만,중국
휴대폰 (8121)	○ 휴대폰 사용인구 증가추세 ○ 카메라폰 등 다기능 고품질화로 기술 경쟁력 확보	일본,핀란드,미국
DVD (813240)	○ 가정용 미디어 플레이어 수요 지속증가 ○ 기존 VTR 시장의 대체 가능	독일,일본,네덜란드,대만

5. 수출확대 전략

- 단일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기지 구축 시급
 - 국내기업의 물류 및 판매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경쟁력을 제고
 - 소량 오더 수주 및 딜리버리 기간 단축에 의한 수출증대 효과
- 유로화 결제비중 확대 노력 필요
 - 국내기업들이 달러화를 결제통화로 선호하는 추세여서 유로화 강세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형편
 -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결제 통화를 다양화하는 노력 필요
- 대형 유통점을 통한 진출 확대
 - 대형 유통점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추세로 제품판매에 있어 효과적인 접근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 소비자 동향 파악 등을 통한 품질 향상과 브랜드개발 필요
- 현지 시장특성에 맞는 마케팅 강화 노력
 - 품목별 전문박람회의 적극 참가를 통해 현지 시장동향 파악, 바이어 발굴, 소비기호 조사 등 마케팅 전략 수립
- 부품 아웃소싱시장 공략
 - 유럽 글로벌기업 및 대형 제조업체의 부품 아웃소싱 추세에 대응하여 한국산부품 공급확대 추진

아시아 · 大洋洲 地域

1. 수출 여건

가. 낙관적 요인

- 2004년도 아시아 · 대양주 지역경제 호조 전망

【 2004년도 아대지역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

국가명	2002년	2003년 전망	2004년 전망	
			ADB	IMF
동남아	4.1	3.9	4.9	-
캄보디아	5.5	5.0	5.5	5.8
인도네시아	3.7	3.4	4.0	4.0
라오스	5.9	5.5	6.0	6.0
말레이시아	4.1	4.1	4.9	5.3
미얀마	-	-	-	4.3
필리핀	4.4	4.0	4.5	4.0
싱가포르	2.2	0.5	4.5	4.2
태국	5.3	6.0	6.0	5.1
베트남	6.4	6.9	7.1	7.0
서남아	4.2	5.8	6.1	-
방글라데시	4.4	5.3	5.7	5.8
인도	4.3	6.0	6.3	5.9
파키스탄	3.4	5.1	5.0	5.1
스리랑카	4.0	5.0	5.5	6.5
대양주	-	-	-	-
호주	3.6	3.0	-	3.5
뉴질랜드	4.4	2.6	-	2.9

자료원 :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3 Update, 2003. 9. 30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3. 9. 17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 72, 2002. 12

주 : 호주, 뉴질랜드의 ADB 란의 수치는 ADB의 자료가 없는 관계로
OECD 자료를 대신 인용함.

○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투자 지속

- 3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추진에 따른 설비 및 단말기 수요 증가
- 이동통신방식을 CDMA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관련 수요 증가
- 기타 도로건설, 발전 및 송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투자 지속

○ 불안정 요소의 안정화에 따른 경제활동 활성화 전망

- 2003년 상반기 동남아를 중심으로 맹위를 떨쳤던 SARS사태가 종식되고, 이라크전쟁의 종전 등으로 인하여 경제의 불안전 요인들이 상당히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래 경제상황 불안으로 수입의사결정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던 바이어들이 경제호조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수입의사결정시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

나. 비관적 요인

○ AFTA 확대 및 심화에 따른 수입전환 효과 본격화

- 2002년까지 기존 6개 회원국이 관세인하대상품목(IL : Inclusive List)에 대한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한데 이어 과거 관세인하 품목에서 잠정적으로 예외조치를 받았던 품목들도 관세인하대상 품목으로 편입되고, 신규가입국가들도 관세인하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감소 우려

○ 정치 불안요인에 대한 우려감 지속으로 경제 회복세 지연

- 이라크의 평화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국, 영국 등 참전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에 대한 테러가 지속되는 한편 서방세력에 대한 이슬람세력의 반발이 증폭
- SARS가 재발할 경우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수입수요가 급감할 위험성 상존

○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시행 지속

- 미국의 對 미얀마 경제제재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7. 29일부터 정상적인 달러화 무역결제 불가능
- 미얀마 정부는 달러화 대신 유로화 결제통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8. 10일) 실제 은행창구에서는 유로화 L/C개설 불가능
- 또한, 미국의 미얀마산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로 2003.8.28일 이후 미국 항구에 도착한 미얀마제품의 수입통관 불가
- 미얀마 봉제산업 침체에 따른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봉제용 원부자재 수입 금감

2. 수출 전망

가. 총 팔 표

(단위:US\$백만,%)

국 가	2002 실적	2003(추정)	2004전망
구주전체	25,083	29,094 (19.2)	31,483 (5.3)

나. 전망 근거

1) 밝은 면

○ 우리나라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 1억불 규모의 태국 고속도로 무선통행 지불시스템 수주
- 인도네시아, CDMA 장비공급계약에 따른 무선통신부문 호조

- 현지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매출 급증에 힘입어 생산설비 확장
 - 현지 투자기업의 현지판매 호조세 지속에 따른 생산시설 확장
 - 투자진출 증가로 관련 기계류 및 부품소재 수출 증가 기대
 - AFTA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국내기업이 경쟁력 유지.확보를 위하여 역내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부품 및 생산설비의 수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 어두운 면

- 수입관세 인상 및 미 금수조치로 수출에 악영향
 - 베트남, 금년 11월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
 - 미얀마, 미국의 금수조치로 한국 봉제원자재 수출 급감
- AFTA 관세인하 대상품목 증가로 대아세안 수출 타격
 - 역내교역의 활성화로 인해 역외교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다. 종합 의견

- 수출의 상당한 비중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대양주지역의 경우 이들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 일본 및 미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 제기로 인해 지역 경제 및 우리나라의 대 아시아지역 수출도 2004년 상반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는 아세안지역의 2004년도 경제성장률을 2003년도 추정치인 3.9% 보다 1.0%p 높은 4.9%로 전망하고 있으며, 서남아시아에 대해서도 2003년 추정치보다 0.3%p 높은 6.1%로 전망하고 있음.
- 자동차, 가전분야 등에서 생산시설의 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및 가전분야의 완성품 수출은 보합세 내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반면 관련 부분품, 자재, 기계설비의 수출은 증가할 전망

3.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가. 총 괄 표 (A)

품목명(MTI코드)	2002년 실적	2003년 추정	2004년 전망
산업기계(72)	677 (25.6)	860 (27.0)	935 (8.7)
자동차(741)	1,006 (3.3)	1,220 (21.3)	1,230 (0.8)
선박(7461)	415(△18.0)	972 (134.2)	1,000 (2.9)
철강제품(61)	1,523(24.7)	1,607 (5.5)	1,720 (7.0)
석유화학(21)	1,389(2.3)	1,700 (22.4)	1,735 (2.1)
정밀화학(22)	662(10.4)	689 (4.1)	705 (2.3)
직물(43)	1,918(△1.4)	1,888 (△1.6)	1,800 (△4.7)
섬유제품(44)	356(12.1)	341 (△4.2)	340 (△0.3)
컴퓨터(813)	1,542(93.2)1	1,655 (7.3)	1,700 (2.7)
무선통신기기(812)	1545 (4.9)	2,640 (70.9)	2,750 (4.2)
반도체(831)	3,297 (△4.4)	3,542 (7.4)	3,650 (3.1)
가전제품(82)	1,372 (17.5)	1,374 (0.2)	1,370 (△0.3)

다.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1) 산업기계

- 2005.1.1일부 섬유쿼터제도 폐지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의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섬유기계 설비 교체수요 증가 전망
- 국내 자동차, 가전업체의 해외 제조시설 확장에 따른 수출 증가
 - 호주,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교체수요 증가
 - 말레이시아, 대우의 자동차 제조설비 수주
 - 인도의 자동차 제조설비 확장

2) 자동차

- 경기호조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기로 자동차 수요는 증가세
 -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기 상승
- 그러나 경쟁국가의 도전과 관세인상으로 부정적인 요소는 존재
 - 말린, 현대 엘란트라와 주 경쟁브랜드인 도요타의 vios 시리즈와 혼다의 뉴시티 모델 출시로 시장점유율 감소 전망
 - 베트남, 9월초부터 새로운 관세율 적용으로 중고승용차 및 트럭의 수입관세율이 기존 관세율에 비해 50% 상승함에 따라 현지 중고차량의 70-80%를 차지하는 우리 중고차량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 예상

3) 선 박

- 지속적인 선박수주로 선박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말레이시아로부터 대규모 선박수주(LNG 4척, 7억 달러 규모)
- 인도로부터 유조선 2척 수주

4) 철강제품

- 철강제품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속될 가능성 상존

5) 직 물

- 미얀마, 봉제산업 침체에 따른 아국의 대미얀마 수출 40%를 차지하는 봉제용 원부자재 수입 금감
- 베트남, 대미 섬유류 수출시 쿼터제도 적용에 따라 한국계 섬유제조업체의 이미 배정받은 쿼터 소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원부자재 수입수요 감소
- 베트남, 필리핀과의 섬유쿼터 및 의류원부자재 교환협정에 따른 대한 의류 원부자재 수출에 타격 예상

6) 컴퓨터

-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의 정보화 급진전에 따른 PC 수요 급증이 예상되지만 한국산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실제 수출 증가는 수요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할 전망

7) 무선통신기기

- 태국 : 금년 8월부터 가동 중인 맥슨전자의 무선전화기 조립공장 생산호조로 무선전화기용 부품품 수출 급증

- 인도 : CDMA 방식 이동통신 서비스가 저렴한 통신비를 무기로 급속히 시장 확대 추세
 - 유무선 전화 등 특정 통신장비에 대한 5%의 특혜관세 부여기간을 2004년 3월말까지 연장
 - 또한, 핸드폰의 소비세 폐지로 수요기반 확대
- 베트남 : 금년 7월 1일부터 CDMA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의 수요 증가 예상
- 말레이시아 : 3세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금년말 서비스 개시 목표로 관련 이동통신장비 투자규모가 1-2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호주 : 한국산 폴더형 휴대폰의 인기 상승으로 수년 내로 폴더형 휴대폰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동남아 :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이 점차 포화수준에 이르면서 가입자 수 증가세 크게 둔화

8) 반도체

-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핸드폰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PC 등 기존 수요분야에서는 보합세 내지는 감소세가 예상되며, 가격도 수요의 대체적인 보합세 유지로 인하여 회복이 어려울 전망

9) 가전기기

- 인도 : LG전자의 제2 공장 착공, 삼성전자의 냉장고 라인 신설 등으로 관련부품 수입 증가

- 인도네시아 : 저가 중국제품의 범람, 밀수입 등으로 한국산 제품 수출 부진
- 호주 :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진행중
- 베트남 : 7월부터 AFTA에 따라 전자제품에 대한 ASEAN 역내 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한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 후퇴

日本 地域

1. 수출 여건

가. 낙관적 요인

- 일본 경제의 점진적 회복세를 배경으로 소폭의 수입수요 회복세
 - 주가 회복, 기업 설비투자 증가, 생산 및 개인소비 회복세를 고려할 때 연간 1%이상 경제성장 달성 가능(당초 전망치 0.6%)
 - 일본의 주요 경제연구기관도 2003년도의 성장률 전망을 0.6%에서 1%대로 수정하고 있으며, IMF도 최근 경제전망에서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
 - 지난 9월말 G7 재무장관회의 개최 시 제기된 엔고(달러당 110엔 전후) 국면으로 인해 모처럼 회복세를 보여 오고 있는 일본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
 - 일본 주요기업의 수출채산성 마지노선은 115~120엔대로서 엔고 심화시 일본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어 전체 수입수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예상
 - '03년 10월 현재 달러당 엔화환율은 9~10엔 정도 상승하여 110엔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으로 일본 정부는 엔고 저지선인 110엔대 지지를 위해 9월중 대대적인 엔 매도
 - 엔고 강세로 110엔대까지 갈 경우 채산성 확보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기업들은 전망
- 엔화 결제수단을 비교적 많이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엔고는 달러표시 수출액의 증가를 의미하여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 한일 FTA체결을 위한 교섭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IT, 전기전자분야에서의 한일 기업간 협력관계가 긴밀화해지고 있어 완성품·부품소재 교역 확대 가능
- 삼성전자와 소니의 액정 합작 생산, 마츠시타, 산요 등이 LG 등과 제휴 국산 가전제품 일본내 판매 대행 사례 등

나. 비관적 요인

-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일본의 수입수요 증가에는 한계 존재
- '04년의 경우 현재와 같은 회복세가 지속되더라도 성장률 자체는 1~2%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디플레 현상지속으로 인한 가격인하 추세하에서 경공업제품(섬유류·농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중저가 중심의 중국산 등과 가격경쟁력에서 열세
- 부품소재류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 등으로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일반 경공업제품도 수요를 환기할만한 확실한 시장환경 변화요인이 없는 상황

2. 수출 전망

가. 총괄표

(단위 : US\$백만, %)

국 가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일 본	15,143(-8.3)	17,141(13.2)	18,090(5.5)

나. 전망 근거

1) 밝은 면

- 일본경기의 점진적 회복세를 배경으로 지속적인 수입수요 기대
 - '03년도 성장율 1%, '04년 1~2%대의 성장률 달성 전망
 - 경기 회복세, 주가회복 등을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 호전으로 기업의 생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도 기대
 - '04년에도 현재와 같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외생변수가 없는 경우, 대일수출은 본격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한일 FTA가 정부간 교섭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역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 지난 10월의 방콕 APEC정상회의에서 한일간 FTA 정부간교섭을 조기에 실시기로 합의하여('03년중 1차 정부간교섭 개시)

2) 어두운 면

- 장기간의 불황에서 벗어나 점차적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본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
- 중저가 시장(중국, 동남아 등) 및 고가브랜드 시장 (구미시장)에서 확실한 시장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대일수출 확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일본기업의 해외 현지생산거점(중국, 동남아)으로부터의 역수입 확대로 한국산 입지 약화 추세

다. 종합 의견

- 국내외 전문기관 공히 일본경제는 '04년중 2%전후의 플러스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03년이후 경기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
- 한일간 FTA 정부간 교섭 개시 등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양국 교역제도·환경면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 종합적으로 볼 때, '03년에 비해 대일 수출시장 환경은 플러스요인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기본적으로 일본경제가 본격 회복기조를 보이기에에는 여전히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획기적인 수입 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04년의 경우 한국의 대일 수출은 '03년 수준과 비슷한 한자리수의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

3.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가. 총 괄 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산업기계(72)	205(-8.0)	257(25.4)	308(20.0)
자동차(741)	33(50.2)	31(-6.1)	33(5.0)
선박(7461)	5(19.0)	2.7(-46.0)	1.6(-40.0)
철강제품(61)	1,026(-13.7)	1,247(21.5)	1,434(15.0)
석유화학(21)	482(-3.7)	647(34.2)	738(14.0)
정밀화학(22)	336(7.9)	392(16.7)	451(15.0)
직물(43)	162(-5.7)	188(16.0)	197(5.0)
섬유제품(44)	706(-23.2)	557(-21.1)	446(-20.0)
컴퓨터(813)	1,076(-34.3)	820(-23.8)	693(-15.5)
무선통신기기(812)	143(175.8)	243(70.0)	365(50.0)
반도체(831)	2,599(31.4)	2,969(14.2)	3,444(16.0)
가전제품(82)	958(-6.2)	932(-2.7)	908(-2.5)

나. 총괄표 (B)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수산물(04)	823(-11.0)	695(-15.6)	591(-15.0)
농산물(01)	536(-6.4)	532(-0.7)	532(0.0)
중전기(84)	172(-10.8)	187(8.7)	204(9.0)
요업제품(24)	146(-8.7)	157(7.5)	170(8.0)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1) 산업기계

- 경기회복세를 배경으로 한 기업의 설비투자 회복세를 배경으로 '03년에 이어 '04년에도 지속적인 수출 호조세 유지 전망

2) 철강제품

- 엔고, 원고 동반 절상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110~120엔대를 유지할 경우 철강제품은 일본시장에서 충분한 가격경쟁력 유지
- 주력 수출기업인 POSCO의 경우 현재와 같은 엔고국면에서도 철강제품 대일수출 영향은 전무
- 기업 설비투자 및 생산성 증가로 한국산 철강의 대일수출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전기·전자 등 철강 수요산업의 호조와 철강단가 상승으로 금액기준 수출은 증가세 지속

3) 무선통신기기

- 이동통신보급 확대, 기지국 신증설 등 수요 기반 확충을 배경으로 무선통신 기기류의 대일 수출은 '04년에도 호조세 지속

4) 반도체

- 대일 주력 수출품목으로서 반도체는 PC, 디지털카메라용의 수요 호조세에 힘입어 '04년중에도 수출은 신장세를 지속
 - '03년 8월 월간 대일 수출실적인 3억불대로 진입한 이래 '04년 중에도 3억불대의 수출실적 유지 가능

5) 자동차

- '03년중 금액기준 월간 1~2백만불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해오던 자동차 대일수출은 올해 9월 들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출 실적(6백만불)을 거양
- 그러나, 자동차 대일수출은 아직까지는 마케팅 기반 강화단계에 불과한 만큼 단기간에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주력 수출기업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2000년부터 일본 시장 공략을 개시, 월드컵 개최이후 제고된 현대 브랜드 이미지를 배경으로 A/S체제 확충, TV광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04년은 향후 완성차 일본시장 공략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전망

6) 선 박

- 선박은 수출규모 자체가 매우 미미하여, 선박의 수출동향이 대일수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

- 선박의 경우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원화절상(달러당 1,200원 이하로 절상이 될 경우) 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어 수출규모는 더욱 축소될 전망

7) 섬유제품

- 개인소비가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디플레 현상으로 전반적인 가격인하 추세에서 중국 등 초저가품의 유입 확대로 한국산의 시장 확대 여지는 매우 희박

8) 컴퓨터

- '03년 하반기이후 주요 수출기업의 일본시장 공급물량 조정으로 인한 수출부진세는 당분간 지속
- 품목별로는 액정모니터(15, 17인치)의 일본시장내 판매 호조 지속으로 수출은 비교적 호조세를 보일 전망

9) 가전제품

- 가전기기부문은 수출시장을 창출할 특별한 요인이 없는 상황으로 현재와 같은 부진세는 당분간 지속 전망
- LG 등 국내 주요 가전메이커는 일본기업과 제휴하거나, 일본 기업이 주력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차별화전략을 채택한 것이 점차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전제품 전체의 본격 수출 신장세로 연결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

4. 수출 유망품목 추천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IT(코드특정곤란)	-광대역통신망 확장등 수요 확대 요인존재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e-learning등 시장수요 지속 확대	일본, 미국, 대만
전기전자부품(상동)	-부품소재 분야 중에서도 전기전자 부품 분야는 전통적으로 한일 기업. 산업간 협력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온 분야의 하나로 최근에는 가전분야로 까지 협력이 확대되는 양상 -이에 따라 아국산 전기전자부품의 채용 사례도 지속 확대 예상	중국, 대만, 동남아,
자동차부품(742)	-완성차메이커의 해외아웃소싱 확대 전략 지속 -소형차 붐에 따른 부품교체, 채용부품수 확대 , 일본완성차메이커의 수출호조 등을 배경으로 한 해외 부품채용 기회 확대 전망	중국, 대만
건축자재(코드특정곤란)	-해외 아웃소싱은 건축자재분야도 예외가 아닌 상황으로 '03년중에는 일본 최대건설 업체인 가지마건설사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구매상담회를 개최한 전례가 있음 -알루미늄건재, 시스템키친 등에 일본 조달관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EU, 미국, 캐나다, 중국

5. 수출확대 전략

- 일본기업의 해외 아웃소싱전략을 활용한 부품소재 등 공급 확대
 - 전력기자재, IT 광대역통신, 자동차부품, 건축자재 등 대기업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및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 한일 FTA 체결 대비 대일 수출확대 종합전략 수립 및 시행

- 획기적인 수출확대 가능품목 등 발굴 및 토털마케팅 실시
- 부품소재 분야 한일 기업간·산업간 협력 사업 강화
 -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등
- 수출·투자유치 활동을 연계하는 중장기 협력사업 전개

中華圈 地域

1. 수출 여건

가. 낙관적 요인

[중 국]

- '03년 중국은 사스 및 미-이라크 전쟁이란 충격에도 불구하고, 공업생산, 수출, 고정자산투자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꾸준히 증가해 세계 1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국으로 부상하는 등, 올해 8% 경제성장목표 달성이 무난하고, 내년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8%대의 고도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금년도 1-3분기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은 8.5%를 달성하였고, 중국정부도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8.2%-8.5%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국내외 일부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고정자산투자와 SOC 건설 확대, 부동산 및 자동차부문의 급 팽창세를 근거로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11%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2003-2004년 중국 경제전망

지표	2003년	2004년
GDP	8.2%	8% 내외
고정자산투자(억 위안)	51,500(18%)	58,560(12.1%)
농업	3%	3%
2차산업	10.9%	9.6%
3차산업	5.8%	7.2%
무역수지	100-200억 달러	100-200 달러
수출	30%내외	12.4%
수입		11.6%
CPI(소비자물가지수)	0.6%	1%

- 2001년 9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던 소비자 물가는 2003년 0.8% 하락하였으나 2003년 들어 반등세를 보이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

- 서비스 가격의 상승세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금년 1-9월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0.7%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금년과 내년에는 각각 0.6%와 1%의 상승이 예상

- 중국은 WTO가입 이후 가입양허안에 따라 순조로운 개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따라 수출대비 수입이 빠르게 증가

- 중국정부는 WTO 가입 3년차 양허 안에 따라 무역방면에서 △대외무역 경영권 개방 확대 △수입관세 인하 △쿼터 및 허가증 관리 완화 △법률정비 및 개선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투자도 외국인 투자영역이 확대되어 對中 교역환경이 금년 대비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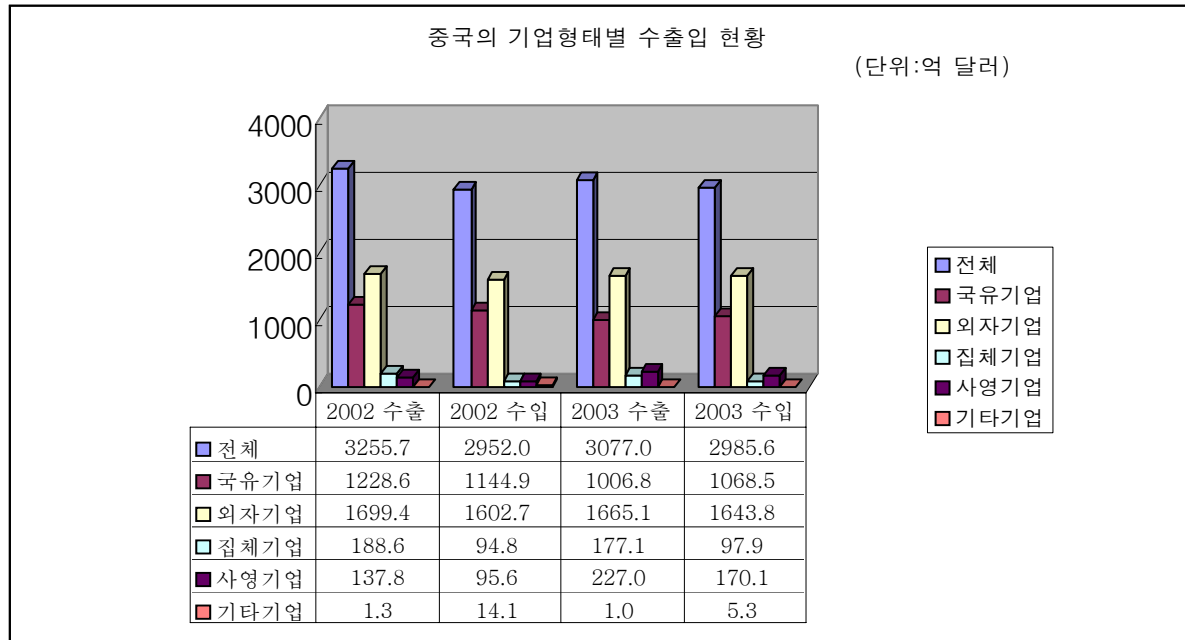
- 2003년 평균수입관세율은 2002년 12%에서 11%로 인하되었으며 공산품 평균수입관세는 11.4%에서 10.3%로, 농산품 평균수입관세는 18.1%에서 16.8%로 낮아졌으며 2004년에도 평균 수입관세율은 하향 조정될 예정

- 중국 내·외자기업의 교역활성화

- 최근 중국정부는 대외교역량 증가에 따라 중국기업의 수출입 경영권 확대 및 외환제도 완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대외교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금년1-9월간 계약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전년 같은기간 대비 35.97% 증가한 792.0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실제투자액

기준 실적은 402.3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85% 늘어나는 등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임.



- 중국의 3대 교역국인 미·일·EU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금년도 중국과 3대 교역국간 무역액도 모두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가공무역의 비중이 큰 중국의 원부자재 수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각국별 2003-2004년 경제성장 전망

	미국	일본	유로지역	영국	독일	프랑스
2003	2.6	2.0	0.5	1.7	-	0.5
2004	3.9	1.4	1.9	2.4	1.5	2.0

자료원 : IMF

- 특히 美달러 가치 하락이 美달러에 페그된 인민폐 가치의 평가절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중·EU간 무역액이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홍 콩]

-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입의 안정적인 증가

2003년 수출입 증가율 현황

(누계, 단위 : %)

연도	2002년	200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수출	+5.4	+26.7	+10.4	+15.4	+9.0	+13.6	+14	+7.6	+7.0	+6.4
수입	+3.3	+21.4	+18.3	+14.6	+8.4	+9.4	+11.5	+5.6	+6.0	+7.3
재수출	+7.7	+30.3	+13.1	+17.5	+11.3	+15.6	+16.5	+9.1	+7.9	+7.6

- CEPA 체결에 따른 전반적 분위기 상승
 - 2003년 6월 홍콩-대륙간 CEPA 체결에 따라 273개의 홍콩원산지 품목에 대한 무관세 조치 및 홍콩기업의 대륙 진출가능에 따라 홍콩과 대륙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인 여행자유화 조치 및 내수경기 진작에 따른 개인소비 증가
 - 중국인의 개인 여행 자유화에 따라 관광객 증가로 소매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3/4분기 -3.7%에서 -2.5%까지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2004년에는 -1%까지 달할 것으로 예측됨.

[대 만]

- 되살아나는 경기
 - SARS와 이라크전등으로 주식시장과 경제지표의 흐름이 미국 등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변동되어 03년 예상경제성장률 3.27%를 2.3%로 하향 조정하였다가 하반기 회복세를 감안하여 2.85%로 다시 상향 조정 (2004년 경제성장률 3.8% 성장 전망(行政院))

○ 대만 정부의 강력한 산업 진흥 정책

- 경제활성화를 위한 6개년(2003~2008) 국가개발계획 및 제조업 5년 면세혜택 등 대만정부의 공공투자확대 및 투자환경개선 조치에 대한 기대

○ 민간 소비의 성장

- 국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04년도 민간 소비가 3.0%의 안정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 WTO 가입으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시장 개방 등 시장개방 확대
- 대만정부는 농공산품 관세를 가입년도(02년도)에 원래의 8.20%에서 7.20%로 인하하고 2003-2011년까지 5.54%로 인하예정

○ 다수의 국책사업 추진

- 노후 전력설비, 전자재, 건설장비 등 수요 증가
- 臺灣電力의 第六輕變電計劃(2001-2006)에 의하면 개체 전력설비 시장규모는 NT\$4,500억 (약 140억불 상당) 추산
- 고속전철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 타이베이-까오슝간 고속전철, 까오슝 지하철 건설, 농촌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대규모투자 및 사업 착수

○ 아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상승

- 한류의 영향과 불경기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아국 주력상품인 이동통신, 자동차, 가전기기 등의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

나. 비관적 요인

[중 국]

○ 중국은 현재 자국시장 보호 및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음

- 날로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 EU, 일본 등 3大 교역국간의 무역마찰은 내년도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2002년 기준 對中 무역적자가 1,031억 달러에 달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통상마찰의 소지는 매우 큼

-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금년에 중국산 칼라TV에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고 EU도 올해 초 중국산 의류, 방직물, 전기·기계제품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였고 각종 환경 관련 법안을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산 제품에 대한 GSP 폐지를 예정하고 있어, 對EU 수출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됨.

- 일본도 최근 들어 유행성 급성전염병을 이유로 중국산 육류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동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잦은 세이프가드 발동과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 등으로 중국의 對日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인 환율약세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2002년 한 해만도 1천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2001년 5월 이후 미국에서 2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안화 평가절상의 압력을 가함.
- 중국정부의 누차에 걸친 위안화 환율안정 공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중국이 사실상의 평가절상을 의미하는 변동환율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 중국정부는 그 동안 환급부진과 중앙정부 재정적자 등 증치세 환급을 둘러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율을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 이번에 발표된 조정된 증치세 환급율에 따라 내년부터 환급율은 평균 15%에서 13%로 하향 조정되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 수출기업의 채산성 유지 악화에 따른 수출감소와 원부자재 수입감소가 우려됨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전개혁위)가 발표한 ‘2003년 3/4분기 공업 생산동향’에서 철강,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 방직, 자동차 등 5개 업종의 과잉생산이 심각한 상태라고 경고
- 방직과 자동차는 각각 중국업체와 합작기업의 외국측 파트너들이 과잉 생산우려 속에서도 설비투자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과잉 설비 우려가 여전히 매우 큼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중복건설과 과잉공급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인식하고 향후 △우수기업 중심의 인수합병 장려 △중복 건설 억제를 위한 법률적 조치 제정 △수급상황을 고려한 기업의 투자방향 지도 △업종별 기술, 품질, 안전, 환경보호 표준제정

△엄격한 시장진입제도 마련 △엄격한 토지보호제도와 개발구
정비 △신용대출 관리를 통한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억제 등 구조
조정 정책을 펴나갈 방침임

[홍 콩]

- 실업문제 등 경제 불안요인 존재
 - 실업률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8%를 상회. 또한 홍콩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약 HK\$ 778억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SARS 재발 가능성
 - 홍콩정부는 위생설비 강화 등 SARS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재발 가능성은 상존
- 홍콩 재수출부문 축소 (장기적인 관점)
 - 중국의 WTO 가입은 홍콩경제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한편으로 홍콩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수출부문의 축소우려가 제기됨
 - 특히, 대만이 중국과의 직항로 협상을 타결하면 홍콩 재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만기업의 중국과의 직접 무역으로 홍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대 만]

- 시장 사수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
 - 동남아, 한국, 일본 등의 대대만 수출이 크게 늘면서 대만 관련 업계의 경영난 심화로 외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

- 대만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산업공동화, 실업문제 등 부정적인 현상발생으로 소비욕구 저하

○ 주요 수출제품이 부품 등 원부자재 중심

- 한국의 대대만 주요 수출제품이 반도체, LCD, 컴퓨터 부품 및 통신제품 등 부품 위주이며, 동 분야에 대한 현지 로컬 생산증가 및 WTO 가입 후 대중 수입개방 확대에 주력 수출품 시장확대가 다소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

○ 구조적인 실업률 문제

- 6개년 국가건설계획과 관광산업진흥계획 등에 따라 실업률 상승을 다소 둔화시키고 있지만 양안 간 시장개방과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구조적인 실업문제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 침체로 연계되는 경제 악순환이 우려

2. 수출 전망

가. 총 괄 표

(단위 : US\$백만, %)

국 가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중국	23,753	36,010(51.6)	49,536(37.6)
홍콩	10,146	13,800(36.0)	14,800(10.0)
대만	6,632	7,000(5.5)	7,200(2.9)
중화권	40,531	56,810(40.2)	71,536(25.9)

자료원: 02년, 03년 KOTIS / 04년 무역관 추정

나. 전망 근거

1) 밝은 면

[중 국]

- 중국,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
 - '92년 한·중 수교 당시 제6위 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은 '01년 일본을 앞서 2위로 부상한 뒤 약 1년 반만에 미국을 제치고 마침내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 '03년 1-9월 대중 수출은 243.9억 달러로 대미수출(241.1억 달러)을 앞섰으며 현 추세 유지시 '03년 연간 대중 수출액은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한·중 교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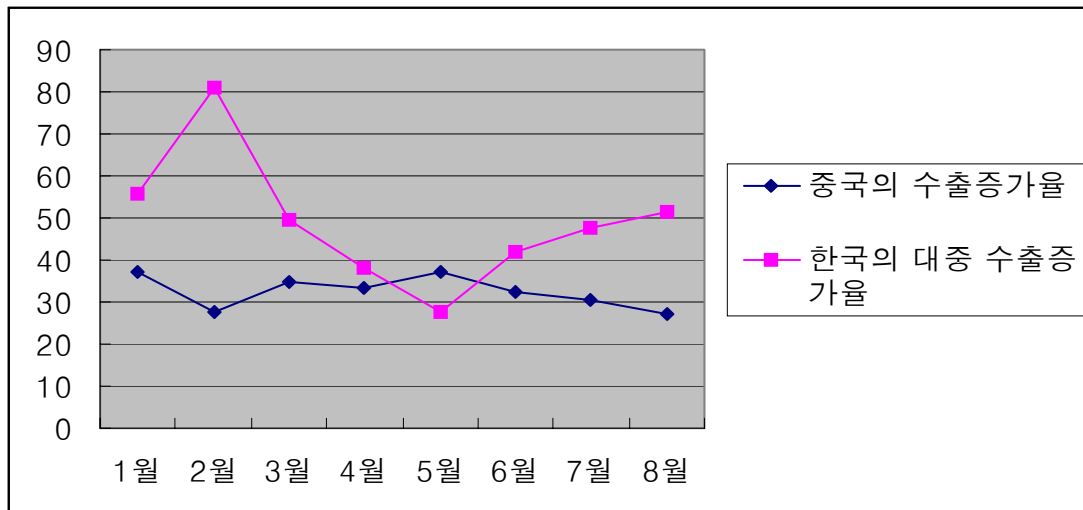
(단위 : 억불, %)

구 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1-9월
총 액	226(22.6)	314.1(43.2)	314.9(0.2)	411.4(30.6)	398.5
對中수출	137(14.6)	186.1(37.6)	181.9(-1.4)	237.5(30.6)	243(48.6)
對中수입	89(36.7)	128.0(62.4)	133.0(3.9)	173.9(30.8)	155.5(26.6)
무역수지	48(-11.0)	58.1(3.5)	48.9(-2.8)	63.5(29.8)	87.5

자료원 : KOTIS, ()은 증감율

- 대중 수출은 '92년 26.5억에서 '02년까지 약 9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폭(2.1배)과 대미·대일 수출증가폭(각각 1.8배, 1.3배)을 압도하고 있음
- 중국의 수출증가에 따른 대중 수출확대 추세
 - 대중교역은 대미·대일 교역 대비, 수출과 수입의 동행추세가 강함 이는 양국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으로 산업내 교역비중이 높고 대중 가공무역투자 구조와의 연관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

중국의 수출증가 추이와 우리의 대중 수출증가 추이 비교
(단위 :%)



자료원 : KOTIS

○ 최대 무역수지 흑자시장으로 부상

- 대중 무역수지는 한·중 수교이전 해마다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였으나 수교를 계기로 '93년부터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었음
- 이는 '92년 수교 이후 대중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현지 투자기업의 한국산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03년 연간 대중 무역흑자는 100억 달러선에 이를 전망
- '03년 1~9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82.90억 달러이며 국별(지역별)로는 중국(87.55억 달러)-홍콩(80.59억 달러)-미국(57.82억 달러) 순

○ 대중 투자 증가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 '92년 12월말 기준 271건, 2억 6백만 달러였던 대중 투자금액(실행기준 누계)은 '03년 6월말 현재 8,036건, 71억 7천만 달러로 각각 29배와 34배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

- 산업자원부 조사 결과, '93년이래 대중 누적투자와 수출의 상관계수는 0.964(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밀접)로 대중 투자증가에 따른 현지 투자기업과 母법인간의 거래확대로 대중 수출증가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

한국의 대중국 투자현황

(단위 : 건, US\$)

구분 연도	허가기준		실행기준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1	112	84,722	69	42,469
1992	269	223,113	170	141,127
1993	631	622,701	381	263,682
1994	1,065	824,858	841	633,084
1995	885	1,282,300	751	841,097
1996	925	1,952,625	733	896,833
1997	751	914,368	630	724,634
1998	317	895,841	263	677,872
1999	552	482,264	456	347,953
2000	904	930,546	763	612,083
2001	1,122	974,895	1,028	572,091
2002.	1,493	1,968,072	1,327	881,360
2003.1-6월	646	828,776	588	503,412
누계	9,733	12,074,881	8,036	7,176,245

자료원 : 수출입은행

- 중국의 WTO가입 이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내수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의 제품은 매년 두 자리수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으로 급부상
- 중국의 정보통신 산업과 전자산업이 확대 발전하고 있어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전자부품, 반도체, 정보통신 설비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품목에 치중되어 왔던 수출품목의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수혜품목의 수출증가율 추이

- * 컴퓨터(1위) : 153.5('00) → 3.3('01) → 145.4('02) → 48.6('03.1-9)
- * 무선통신기기(2위) : △19.5('00) → 289.3('01)→ 343.0('02) → 114.2('03.1-9)
- * 자동차부품(10위) : 18.1('00)→ △5.5('01)→ 116.2('02)→ 506.0('03.1-9)

주 : MTI 3단위 기준 대중 수출품목 순위

-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에 따라 관련 품목의 수출증가세도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수입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 서부 대개발 사업 추진, 2008년 올림픽 개최 등의 대규모 사업추진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혜품목의 수출증가율 추이

- * 건설광산기계(11위) : 23.8('00) → 29.5('01) → 61.7('02) → 120.3('03.1-9)
- * 기타기계류(16위) : 151.1('00) → △3.3('01) → 26.7('02) → 45.4('03.1-9)
- * 전선(25위) : 24.9('00) → 48.2('01) → 29.0('02) → 55.1('03.1-9)

주 : MTI 3단위 기준

[홍콩]

- 홍콩경유 중국 재수출물량 증가추세
- 홍콩통계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상품의 홍콩경유 대중 재수출은 '02년 49.87억 달러로 전년대비 17.8% 증가한 데 이어 '03년 1~8월 38.2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1.5% 증가

- 중국 경기 진작에 따라 철강, 기계,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수출을 위한 홍콩의 대한국 수입규모가 전년대비 20%-30%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홍콩 내수시장 경기회복
 - 소매업 및 여행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부동산, 주식시장 등도 활성화됨에 따라 홍콩 내수시장을 위한 수출물량도 차츰 늘어날 전망이다

[대 만]

- 대만 이동통신업체의 성공적인 3G 서비스 개통과 관련 제조업체에 대한 조세우대 정책 등으로 '04년 고가 핸드폰 소비시장 대폭 확대 예상
-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증가 예상
- 반도체 시장 확대 및 D-RAM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수출 규모가 늘어날 전망
-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2) 어두운 면

[중 국]

-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2005년까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대폭으로 완화할 예정이나 각국의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반덤핑 제소 등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정부의 반덤핑 공세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한중 무역불균형과 과잉공급에 따라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석유화학제품, 산업용전자제품, 전자부품, 철강제품, 직물 등 주요 제품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수출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현재까지 24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한국은 19건에 해당하여 최다 피소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발동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
- 중국은 최근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현행 평균 15%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2%로 인하할 예정으로 환급율 조정에 따른 중국기업의 대외수출 감소로 관련 원부자재 수입선을 내수시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수출증치세 인하조치는 과다환급에 따른 중국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제시되었으며 한편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위안화 평가절상요구에 대한 간접적인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됨
- 우리가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화공품 등에 있어 중국제품의 경쟁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급증으로 중국내 기술이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우리의 수출주력 품목의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컴퓨터, 가전, 비철금속 등 업종에서 중국과의 경합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격속도가 빨라 양국간 차이가 좁혀지고 있음

[홍콩]

○ CEPA 체결에 따른 우리기업의 영향

- 홍콩 원산지인 273개 품목에 대한 대륙의 무관세 조치에 따라 시계, 의류, 완구 등 홍콩기업이 혜택 받는 일부품목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달러화 약세에 따른 수입가 상승

-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 미 달러와 고정된 홍콩달러의 약세현상과 이에 따른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 하락이 우려됨

[대 만]

○ 현지 생산증가와 중국이전

- 반도체, LCD,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제품에 대한 대만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생산 확대로 일부 제품의 경우, 수출시장 축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아울러 주요 수출제품이 원부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어, 대만 제조업체의 중국이전이 우리 수출 시장 축소를 야기

○ 제조업체의 중국이전 및 자체 원부자재 조달 등으로 아국 주요 수출 품목의 수입수요 격감

- '03년 대만의 대 중국 투자 US\$ 100억(중앙은행)

○ 바이어들의 아국제품 인지도와 가격 경쟁력

- 소비자의 인지도 상승과 상대적으로 아국 제품에 대해 중국, 동남아산 등과 유사가격대로 취급
- 저가시장 형성으로 아국제품의 가격경쟁력 취약

- 하이테크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대만 상품과의 주도권 경쟁
 - 대만 정부의 TFT-LCD와 반도체상품의 세계 최대 공급국 육성 정책으로 대단위 투자지원과 국외 자금 유입 등으로 한국과 주도권 경쟁은 물론 해당제품의 대대만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기술 개발 연구 중심지로의 산업 구조 변화
 - 산업공동화를 우려한 대만 정부의 산업구조 변화 정책이 최근 국제 글로벌 기업 등의 투자결정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고 부가가치 지향의 산업구조가 예상되어 아국과 경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 road-com, Telecordia, AKT, Enicsson사 등 올해 기술연구 개발센터설립 투자 결정이 예상되는 세계 유수 글로벌 기업이 총 20개사가 될 전망
- 중국 제품의 수입개방 확대
 - 대만의 잇따른 중국제품 수입개방이 이루어져 중국산 제품과의 시장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어 대대만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PCB, 디지털식 레코드플레이어, LED, 반도체 웨이퍼, 세탁건조기 등 287개 공업제품과 29개 농산품에 대해 수입개방

다. 종합 의견

- 금년도 미-이라크 전쟁 및 사스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당분간 중국경제는 8% 전후의 고도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적인 증가세가 유지되어 수입시장은 40%내외로 증가하고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뤼푸위안(呂福源) 상무부 부장(장관)은 지난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에서 중국은 앞으로 3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의 수입시장은 향후 2-5년간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경제성장과 수출확대에 따라 우리의 대중 수출은 몇 년 동안은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 수출 및 투자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WTO가입 3년차를 맞이하여 대중 수출 및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자기업 유입의 확대로 중국 시장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 정부의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제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중국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가와의 통상마찰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위안화 평가절상과 무역마찰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으로 미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홍콩은 중국과의 CEPA 협정체결로 인하여 2004년부터 홍콩-대륙간 경제교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홍콩내 생산이 적은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등에 집중되어 있어 CEPA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 경기호황에 따른 홍콩경유 재수출 물량 증가가 2004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몇가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의 수출을 약 10%대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대대만 수출의 경우,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D-RAM의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액 증대 예상
- 한국과 최대 경쟁분야인 LCD 분야의 삼성과 소니사의 합작계획 등이 대만업체로 하여금 17인치 이하의 소형 LCD 생산에 주력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LCD 패널의 수출 확대가 기대됨
- 대만 경제부는 대만기업의 대중투자 심사방식을 현행 허가제에서 향후 신고 위주, 심사 보조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의 중국이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 원부재자 수출 시장의 악영향이 우려됨
- 대만의 민간기업 투자침체와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구조적인 실업자 문제가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쳐 단기간 내 소비침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대만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대만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고, 불경기로 내수보다는 수출이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 원자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국의 대대만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3. 주요 수출 품목별 전망

가. 총 괄 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산업기계(72)	1,128	1,888(67.37)	2,629(39.24)
자동차(741)	300	703(134.33)	1,508(114.5)

선박(7461)	119	228(91.59)	257(12.71)
철강제품(61)	2,296	3,738(62.8)	5,900(57.83)
석유화학(21)	4,820	6,468(34.19)	8,146(25.94)
정밀화학(22)	972	1,091(12.24)	1,228(12.55)
직물(43)	2,534	2,546(0.47)	2,592(1.8)
섬유제품(44)	451	484(7.31)	494(2.06)
컴퓨터(813)	4,169	6,027(44.56)	7,916(31.34)
무선통신기기(812)	3,886	6,416(65.10)	10,883(69.62)
반도체(831)	4,756	6,497(36.6)	9,430(45.14)
가전제품(82)	1,398	1,812(29.61)	2,133(17.71)

나. 총 팔 표 (B)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석유제품(133)	1,171(-26.8)	1,633(39.5)	2,047(25.4)
전자관(832)	1,138(16.3)	1,161(2.1)	1,500(3.4)
자동차 부품(742)	168(116.2)	1,075(540.4)	4,846(350.8)
가죽(331)	578(-13.6)	461(-20.1)	389(-15.5)
기타기계류(790)	398(26.7)	559(40.2)	759(35.9)
모니터(8134)	290.3(259.7)	789(363.8)	1,200(52)
건전지 및 축전지(835)	83(136.5)	149(80)	193(30)
알루미늄(621)	62(10.7)	85(37)	94(10)
종이제품(252)	49(-3.3)	54(10)	59(10)
아연제품(626)	50(-4.0)	62(24)	67(8)

다.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근거

1) 자동차 부품

- 중국 자동차부품 시장은 아직 시장화초기 단계로 가격시스템이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성차 기업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내 거의 모든 대형 완성차 제조기업이 중외합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자동차부품은 다수가 현지 외자기업의 생산품 혹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제품별로 고급 기어박스, 차축, 피스톤, 엔진, 디지털부품 등 기술력이 요구되는 부품의 경우 중국내 생산기업이 적고 자체 기술부족으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고 있으며 자국산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관련 쿼터 물량을 부품 위주로 배정하고 있음

2) 철강제품

- 중국철강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건축, 기계, 자동차, 조선, 철도, 석유, 가전, 컨테이너 등 8대 산업의 양호한 시장전망으로 주요 원자재인 철강의 수요량이 대폭 늘어나 2005년 약 2.13억 톤, 2010년 2.61억 톤의 수요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
- 최근 세계적인 철강 가격의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품목별로 가격상승폭이 각각 대형강재 15.7%, 중형강재 20.8%, 소형강재 12.2%, 중후강판 21.5%, 박판 11.5%, 선재 2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증가에 따라 당분간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04년도 대만의 대 중국 수출 호황이 예상되어 대만의 철강 수입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철강가격 하락 및 중국제품의 범람으로 수출액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3) 반도체

- 중국 화동지역 IC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IC시장에서 연간 1,800억 위안(약 218억 달러)의 수요량 중 거의 90%(약 1,600억 위안, 약 193억 달러)가 수입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는 등, IC산업의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IDC 社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 이르러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약 361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며 이중 중국내 공급비중은 23.5%(약 85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음.
- 메릴린치 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연간 25%의 성장률을 지속하여 2007년에 이르러 430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이며 2010년에 이르러 세계 2대 반도체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한편 대홍콩 반도체 수출액이 03년 1-9월까지 전년대비 약 30% 이상 증가하였음. 반도체, 전자관련 중국내 수요급증에 따라 홍콩의 중국 재수출 물량도 계속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대대만 반도체 수출은 D램의 가격상승, 대만 NB, PC 제조업체들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 증가세를 보일 것임. 특히 대만의 IT 업계가 OEM, ODM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 카메라, 웹 카메라, 디지털 영상 핸드폰 등의 생산급증 전망에 따라 관련 CMOS 센서 등의 수요 급증이 기대

4) 컴퓨터

- 2003년도 상반기 중국 PC시장 매출량은 514.45만대, 매출액은 386.0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0.4%, 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트북의 매출량과 매출액은 각각 39.2%와 25.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신장세를 기록.
- 2003년 상반기 중국 컴퓨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과거 20%이상의 고속성장과 비교할 때 이미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품목별 데스크탑, PC서버의 전체 컴퓨터제품에서의 매출액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4%p, -0.4%p 떨어졌으며 중대형 도시의 시장은 점차 포화상태를 보이며 가격하락세가 나타남

- 대홍콩 컴퓨터 수출도 2003년 1-9월까지 전년대비 약 150%이상 증가하였고, 중국의 인터넷 보급 확산에 따른 컴퓨터 수요증가로 홍콩을 통한 재수출도 호조세를 보일 전망
- 한편 대만 제조업체들의 대량생산에 의한 저가공세로 아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이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또한 인터넷 사용량 증가로 스토리지 관련 제품의 수입수요가 예상되나, 저가 중국 내 제조 상품의 기술력 향상으로 수출증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무선통신기기

- 2003년 7월말 현재 중국의 전화사용자는 4.8억 명이며 그중 이동 전화 사용자는 2.4억명에 달하고 네트워크 규모 및 사용자 수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이동통신은 금년 GPRS 혹은 WLAN 방식을 통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향후 무선인터넷 등 무선통신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 8월말 현재 통신업에 대한 고정자산투자는 1,082.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30.4% 증가한 반면, 체신업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는 12.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9.1% 감소
- 홍콩에서는 삼성전자의 가격차별화 전략에 따라 한국브랜드 이미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컬러휴대폰에 대한 수요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대만에서는 이동 통신 업체들이 04년 본격적으로 3G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핸드폰의 수입수요가 대폭 증가 예상되나, 대만 이동 통신사들의 주력 핸드폰 채택에서 모토로라 등 타국 제품 고려 현상이 눈에 띄고 있어 세심한 접근이 요망

6) 모니터

- 삼성 및 LG의 브랜드홍보강화 및 품질에 대한 홍콩인들의 인식이 좋아지면서 LCD모니터에 대한 홍콩내 수요증가 예상

7) 산업기계

- 대만에서 LCD 및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들의 정밀 산업 기계류의 한국제품 사용 사례가 늘고 있으며, 04년도 수출 호조가 기대됨

8) 자동차

- 대대만 자동차 수출은 올 상반기 현대 Matrix가 수입차 부분에서 최다 판매량을 보이는 등 아국 제품의 인지도 상승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함. 특히 기존 대만 내 영업대리상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형 고객만족 A/S 서비스 등이 대만 소비자들에 서서히 인식되어 가고 있음
- 또한 04년부터 WTO 가입 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입규제 209 조항을 전면 취소하게 되는 등 수입규제가 완화되면서 대대만 자동차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4. 수출 유망품목 추천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컴퓨터부품(8136)	- 중국내 인터넷 인구 증가와 PC 생산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홍콩을 통한 재수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	대만, 미국, 일본
무선통신기기부품(8128)	- 무선 통신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CDMA 사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대만, 미국, 일본, 핀란드, 영국

	있어 매년 대중 수출은 2배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홍콩을 통한 재수출도 호조세를 보일 전망	
무선전화기(8121)	- 중국의 WTO가입 이후 금년도부터 관세는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한국산 핸드폰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 수입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컬러 핸드폰 및 카메라 핸드폰 등 신제품 출시에 따라 수출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대만 이동 통신업체의 3G 시장 개시로 디지털 영상기능의 고급 핸드폰 수요 급증 - 우리제품의 인지도 상승으로 고급 기종의 대대만 수출 확대 예상	미국, 스웨덴, 일본
데이터 디스플레이 장치(813420)	- 전자제품의 디지털화와 경량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전자제품 수출증가에 따라 매년 꾸준한 신장세를 유지 - 홍콩 경유 수출도 꾸준할 전망.	대만,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열연강판(6132)	- 중국내 가전, 자동차, 통신 등 공업생산의 증가와 건설 증가에 따라 수요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일본, 러시아, 중국
자동차부품(7420)	- 중국내 자동차 생산 증가와 자동차 쿼터 물량 중 부품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2-3년간 폭발적인 신장세가 예상됨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냉연강판(6133)	- 중국내 가전, 자동차, 통신 등 공업생산의 증가와 건설 증가에 따라 수요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일본, 러시아, 중국

승용차(7411)	-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따라 자동차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2-3년간 매년 큰 폭의 신장세가 기대됨 - 대만의 WTO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 및 우리 제품의 인지도 상승으로 수출 호조가 기대	미국, 일본, 독일
광학기기부품 (7152)	- 중국내 광학관련 기기 생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자체의 기술력 한계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향후 높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 독일, 미국
금속절삭가공기계 (7231)	- 중국내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와 공업생산 증가 등 신규투자와 생산증가에 따라 공업용 기계의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독일, 일본, 미국
메모리반도체 (812110)	- 중국 전자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의 핵심부품인 반도체 자급율은 23%에 불과. 따라서 우리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 - 홍콩을 경유한 중국 진출도 다대할 전망. - 대만 전자산업의 지속적인 활기로 우리 반도체 수요도 호조세를 보일 전망.	일본,독일

코트 및 자켓 (441101)	- 홍콩내 한국이미지 상승으로 우리 패션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 계절에 따라 수요변화가 심한 상품이지만 01년도 말부터 꾸준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03년도 1-9월 수출증가율이 1만2천%에 이름	일본,대만
건전지 및 축전지 (835)	- 대만내 노트북, PDA등의 생산량 증가로 2차 전지의 수출 호조가 예상됨. 특히 국내 화학업체들이 대만진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일본
소프트웨어 (812110)	- 대만은 통신시장이 확대되는 반면 통신 분야의 취약한 Infra-structure로 응용 System 개발 업체들의 기술력 저하와 이에 따른 임베디드 시스템 수입수요 증가가 예상 - 이밖에도 네트워크 기반 Backup software, Storage Software, 모바일 콘텐츠 유망	미국,일본, 유럽
건설중장비(7251)	- 중국내 가전, 자동차, 통신 등 공업생산의 증가와 건설 증가에 따라 수요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독일, 미국, 일본

5. 수출확대전략

[중국·홍콩]

○ ‘원-원’ 전략 최우선해야

- 대중 수출급증세 및 양국 교역의 전면적 확대발전 과정에서 통상 마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에 따른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 및 정부와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중국 내수시장 정보에 근거한 수출확대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저가수출 지양

- 중국은 종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의존했으나 WTO 가입 이후 반덤핑조사와 세이프가드 등 WTO 규정에 부합되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밀어내기식 수출은 우리 상품을 저가·저급상품으로 고착시킬 우려가 있고 자칫 중국에게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를 초래할 수 있어 단순한 가격경쟁력보다는 차별화된 제품개발 및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

○ 산업별 특화전략 수립

- 중국은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중국과 완제품 생산을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핵심 부품 및 소재, 중간재 공급에 특화

○ 新산업 분야 시장선점 노력

- IT, BT 등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 시장선점 노력이 필요함. 특히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고려

○ 홍콩을 적극 활용한 대중국 수출 전략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교역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서방과의 교역 관행이 미숙한 중국기업과 한국 중소수출업체들간 중계 무역 기지로 활용
- 홍콩을 경유, 각국으로 재수출되는 한국상품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며 한국은 중국-일본-대만-미국에 이은 홍콩경유 대중국 재수출 5위국임

[대 만]

- 저가, 저급 이미지 불식 위한 전략적 이미지제고
 - 수출 주류품이 반도체, LCD, 통신제품 등 첨단분야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 위주로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한계가 있음. 또한 한국제품에 대해 품질은 인정하면서도 가격은 동남아 및 중국산과 비교하는 경향이 농후함.
 - 따라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및 상품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대한 노력이 필요
 - 이의 일환으로 가전, 핸드폰 등 통신제품 및 자동차 등 고가품, 고가 이미지 제품의 전략적 마케팅이 요구됨.
- 문화상품 수출 강화
 - 게임, 드라마, 가요 및 애니메이션 등 수출유발 효과가 큰 문화상품의 지속적 수출 확대방안 및 이를 활용한 상품 마케팅이 필요

중남미 지역

1. 수출여건

가. 낙관적 요인

- 중남미 경제의 경기회복 및 견실한 거시경제지표 유지
- 중남미 경제는 2002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3년 1.8%, 2004년 3.7%의 안정된 성장궤도 진입기대 (World Bank)
- 특히, 한국 중남미 수출 주력시장인 멕시코, 브라질 등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전망

2004년도 경제성장 전망

국별	성장률
멕시코	1.5 ~ 1.7%
브라질	3.0 ~ 3.3%
아르헨티나	4.0%
코스타리카	4.3%
우루과아	3.0%

-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환율이 연말을 기점으로 안정 전망

국별	환 율
멕시코 페소	11
브라질 헤알	3.0
칠레 페소	630 ~ 640

○ 중남미 국가의 주요 수출시장 호조 및 수출증가

- 2004년 세계경제는 올해 대비 1% 포인트 높은 3.0%의 성장이 기대되며, 중남미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경제는 2004년 3.4% 성장 기대
- 페루, 콜롬비아 등은 미국의 안데안특혜관세법(ATPDEA)에 따라 페루의 대미 수출이 20% 증가하는 등 섬유, 수산물, 신발류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으로 수출이 확대될 전망
- 콜롬비아의 경우 제2의 무역파트너인 베네수엘라가 금년의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콜롬비아의 대베네수엘라 수출 회복전망

○ 경제성장 및 경기부양정책에 총력 경주

- 브라질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에 대한 협약이 2003년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긴축재정정책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금년 신정부 취임이후 수출 촉진정책을 가속화
- 콜롬비아의 경우 현 정부가 그동안 반군계열과 토벌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반면 집권 3년차인 2004년부터는 경제활성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
- 우루과이의 경우 재정수입 지속 증가 및 2004년 '대통령 선거의 해'로 공공부문의 투자지출 증가 예상
- 과테말라의 경우 2004년 1월 신정부 출범으로 도로, 항만, 주택, 병원, 통신설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

- 페루의 경우 최대 국책사업인 Camisea 프로젝트로 16억불 외국인 투자유치
- 도미니카 등은 정치안정으로 정치·경제 불안요소 제거
 - 도미니카의 경우 Banintel 은행 대형 부도 등으로 야기된 IMF 금융지원 체제 전락 등 정치·경제 불안 요소가 2004년 5월 대선 이후 제거될 전망
 - 콜롬비아의 경우 2003. 10. 25 실시된 헌법개정 국민투표 결과, 현 행정부의 정치개혁정책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 향후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나. 비관적 요인

-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신인도 하락
 - 멕시코, 에너지 및 세제개혁안의 의회통과가 불투명하여 투자가의 대 멕시코 경제 신인도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 회복에 악영향
 - 베네수엘라, 외환통제가 지속되어 수입용 외환획득의 어려움으로 대외수입이 감소
 - 페루, 후지모리 정부에 비해 경제에 대한 관심 저조
 - 도미니카, 경제불안 요소가 상존하여 경제 저성장, 고물가 및 고실업

등이 예상되어 구매력 약화 예상

○ 비관세 장벽 강화 추세

- 멕시코, 저가 중국산 제품의 수입억제 목적으로 아시아산 섬유, 가전, 잡화, 신발류에 대한 통관 검사 및 단속을 강화

- 2003년 9월부터 선적전 검사증명서를 첨부한 수입건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우대하는 조치 도입

. 2004년부터는 선적전 검사제도 의무화 예상

- 콜롬비아, 수입관련 세금 신설 또는 인상 추진으로 200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수입장벽 강화 예상

. 수입세 2% 추가, 수입환전세 10%로 인상 등

- 브라질, 중국산 폴리에스터 직물 수입 확대에 따라 한국산 직물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수입전환 효과 발생

- 2004년 초 멕시코-일본과의 FTA 합의로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산 상품의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전망

- 브라질-멕시코 특혜무역협정, 브라질- 페루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중남미 주요국과의 역내교역 확대 추세
- 카리브경제공동체, 중미공동시장과의 FTA 체결, 미국과 대만과의 FTA가 추진되면서 도미니카의 경우 수입품목간 가격경쟁이 격화 추세
- 미국과 중미공동시장(CACM)간 자유무역협정(CAFTA) 협상이 2003년중 합의도달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CAFTA 협상이 체결되면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미국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심각한 경쟁력 손실 우려

2. 수출 전망

가. 총괄표

(단위 : US\$백만, %)

국 가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중남미	9.044	9,065(0,2)	10,581(16.7)

나. 전망근거

1) 밝은 면

- 중남미 각국의 국내경기 회복세로 수입수요 증가

- 2004년부터 멕시코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하여 1.7%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수 및 수입수요 증가

- 브라질의 경우 2004년중 경제성장률이 3% 이상으로 전망되고
중 앙은행 콜금리가 금년 5월 26.5%에서 금년말에는 17%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가전제품, 자동차 등 제품구매시 할부금융을 통한 제품구매가
일반화되었다는 점에서 금리인하는 소비확대로 이어져 수입수요 확대

- 아르헨티아의 경우도 지속적인 경제회복에 따른 수입수요가
신장되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추세

○ 한-칠레 FTA 발효

- FTA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여개 품목이 즉시 자유화되고, 자동차 부품, 포레에틸렌 등
2,000여개 품목이 향후 5년간 균등 관세철폐됨에 따라 대칠레
주종 수출품목의 수출확대 예상

○ 현지투자 한국기업의 부품 및 기계류 수요 확대

- 멕시코 투자진출 한국기업들의 수입하는 부품·기계류 수요 확대
- 과테말라의 경우 미-중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대미 진출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 대미 수출용 원부자재 수출 확대, 투자진출 확대 예상

☞ 한국계 기업이 과테말라 마킬라 기업의 약 70%를 점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산 원부자재 수출확대 전망

- 페루의 경우 안데안 특혜관세법(ATPDEA)활용을 통한 대미수출 증대로 우리나라산 섬유 원자재 및 기계류 수요 급증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이미지 상승 및 품목 다변화

- 전반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힘입어 기계 및 부품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출여건 개선 기대(멕시코)

- 90년대 말부터 한국산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소비재 뿐만 아니라 원자재, 자본재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기대 (콜롬비아)

- 2002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자동차·가전·IT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상품의 품질 및 기술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코스타리카)

2) 어두운 면

○ 중국, 대만산 진출확대

- 중국산이 저가 메리트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최근 브라질시장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 확대에 큰 위협으로 작용

. 특히 중국이 현지생산체제 확대를 통해 한국과 경쟁

- 칠레시장의 경우도 의류·섬유·신발·안경·인형·컴퓨터·자동차부품에 이르기까지 중국 및 대만산 제품이 칠레시장을 잠식
 - 페루도 중국산 등 저가품 공세로 한국산 시장 점유율 감소
 - 콜롬비아의 경우 직물, 의류 등 일부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산의 저가공세에 따른 수입 감소가 확대 전망
 - 코스타리카에서는 대만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대만기업을 통해 중화권 저가 상품 보급이 확대
- 자유무역협정 배제로 가격경쟁력 약화 및 시장상실
- 한·칠레 FTA발효 지연으로 기존 한국산 제품을 MERCOSUR, EU 제품으로 수입전환하는 현상이 발생
 - 지난 2002년 6월 체결된 미-칠레 FTA가 2004년 1월 1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칠레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 발효시 미국의 대칠레 수출의 89%를 차지하는 5,300여 품목이

무관세로 수입

- 2004년초 일-칠레 FTA 협상완료로 日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우리상품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전망
- 브라질의 경우 브라질-멕시코 특혜관세협정이 금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멕시코제품의 유입도 크게 확대될 전망
- 통상제도 변화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
 - 브라질은 1999년 1월부터 시작된 변동환율제에 따른 환율급등 현상 및 브라질 정부의 국내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제품, 직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 산업에 걸쳐 수입대체효과가 확대 추세
 - 콜롬비아의 경우 2003년 말까지 시행된 기계류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수입이 중지되면서 2003년 70% 이상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섬유 및 화학기계류의 수입이 감소

다. 종합의견

- 2004년도 중남미 수출은 주력시장인 멕시코, 브라질 등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의 경우 미국경제 회복전망에 따라 전체적인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수출도 증가할 전망

. 단, 세제 및 에너지 개혁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중요

- 브라질의 경우 내년도 경제가 3% 정도 성장하고 환율도 안정세가 예상되고 있어 전기전자부품, 화학제품, 기계류, 철강금속, 산업용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을 위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

- 칠레는 총 28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내년 1월 부터 미국과의 FTA도 발효될 예정이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

. 그러나 3%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5~5.0%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

. 폐소화 강제로 수입가격이 인하되면서 자동차·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있음

- 파나마 소비자 사이에 한국 제품, 상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파나마 경제 불황 상태 지속이 예상됨에 따라 가전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을 비롯한 전품목에 걸쳐 수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예상

- 콜롬비아는 지난 1999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2004년에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자재 및 자본재 쪽의 수입 증가 전망

- 2004년도 베네수엘라 수출은 외환통제의 철폐 여부 및 정치적 안정도에 달려 있음
- 도미니카의 경우 2003년도에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IMF 관리체제 전략으로 구매수요가 급감

. 2004년도에는 5월 대선이후부터 경기가 회복될 전망

- 우루과이는 자동차,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상품의 회복을 기반으로 가전 및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증가 등 전년대비 40% 이상의 수출 증가 전망
- 코스타리카는 자동차 수출이 2003년 급감한 이후 2004년에 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경제는 대미의존도가 매우 높아 미국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경제성장이 좌우될 전망으로 민간기업의 지지를 받는 신정부 출범, 원만한 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시 경제회복이 가속화되고 수출용 원부자재, 기계류 등 중심으로 우리 수출 활성화
- 아르헨티나의 경우 경제가 지난해 꺾었던 GDP 두 자릿수 후퇴로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딛고 금년 들어 높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계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탈 전망인 바 수입수요가 금년 보다 크게 늘 것으로 보임

- 정부의 경제 안정화 및 활성화 정책 병행으로 IMF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활황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달러화 환율이 2.8 ~ 3.0페소선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수입수요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 페루는 2003년 경제성장률이 5%로 추정되는 중남미 최고 성장시장으로 정부 및 업계가 관심을 기울이면 수출증대 가능성 많음
- 페루에서 한국산 가전제품 시장점유율 50%이상으로 섬유, 기계, 건축자재, 중고기계, 자동차부품, 컴퓨터, 화학제품 등이 수출유망

3.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가. 총괄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산업기계(72)	157	1.7	161	2.4	178	11.0
자동차(741)	860	-20.8	711	-17.3	868	22.0
선박(7461)	2,363	5.6	2,344	-0.8	2,414	3.0
철강제품(61)	241	-2.6	215	-10.6	220	2.1
석유화학(21)	363	-16.7	519	43	587	13.0
정밀화학(22)	130	4.1	116	-11.2	122	5.0
직물(43)	955	-12.5	736	-23	726	- 1.3
섬유제품(44)	110	-6.8	93	-15.6	93	0.1
컴퓨터(813)	422	43.8	582	38	786	35.0
무선통신기기(812)	704	5	714	1.4	921	29.0
반도체(831)	11	-42.5	26	146.5	44	65.0
가전제품(82)	766	-19	713	-6.8	828	16.0

나. 총괄표 (B)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 (추정)	2003 (전망)
자동차부품(742)	156(4.7)	190(-1.0)	136(25.0)
고무제품(320)	167(-28.0)	108(-5.0)	125(15.0)
플라스틱제품 (310)	91(28.4)	97(22.0)	126(30.0)

다.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1) 산업기계

- 2004년 대선이후 정부발주 프로젝트 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발전 설비용 기기, 건축자재 생산기계, 섬유류 제조기기,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기 등을 중심으로 안정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도미니카)
- 수출회복에 따라 관련 시설재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는 관련 기계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 (브라질)

2) 자동차

- 기본적으로 대멕시코 자동차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현대자동차 Atoz 수출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자동차 수출은 현대자동차의 차종 확대와 함께 GM의 대우자동차 Matiz 수출 개시로 수출 확대 기대(멕시코)
- 이자율 인하 및 국내 경기회복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나 브라질 자동차 조립생산업체들의 생산능력에 비해 국내 수요가 크게 부족함에 따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현지생산업체들은 수출확대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있고 자동차 수입관세가 35%로 수입차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불리한 상태이며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브라질)
- 2003년 들어 신차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차종 공급과 차량구입 용자상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2004년에도 꾸준한

판매 증가예상. 현재는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국산자동차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며, FTA가 발효될 경우는 가격경쟁력 강화로 2001년도 수준(24%)의 시장점유율 회복 예상(칠레)

- 대우자동차의 판매법인 철수로 2003년에는 수출이 크게 줄었으나, 기아자동차가 공백을 메우고 있고, GM-대우의 Chevrolet 브랜드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수출의 회복이 예상되나 2002년 수준으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콜롬비아)

3) 선박

- 2002 년 세계 경기 회복지연, 해운경기 전망 불투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3/4 분기까지는 부진했으나 해운시황 개선 및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 선가 바닥 인식 확산 등을 계기로 4/4 분기 들어 활발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음
- 편의국적선 등록 국가도 바하마 등 다른 국가의 세제혜택 확대로 편의국적 등록 국가가 파나마에서 다른 국가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도 파나마 선박 수출 감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4) 철강제품

- 멕시코 국내소비는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멕시코 시장 가격이 기타 국제시장보다 크게 낮아 한국으로부터의 공급부족으로 대멕시코 수출확대 감소 불가피하며 2004년에는 멕시코-일본 FTA로 일본산 철강의 가격경쟁 확보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출여건 더욱 악화(멕시코)
- 파나마는 국내 소비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므로 한국 제품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멕시코, 동유럽,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등과 경쟁하고 있어 철강 가격이 매우 낮고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태

5) 석유화학

- 내년도 브라질 경기회복 및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석유화학 제품 수출호조세 지속으로 현지생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입수요 확대 전망 (브라질)
- 최근 한국산 플라스틱 레진의 우수성과 품질경쟁력이 알려지면서 수입선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2003년 전체적인 한국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제품은 전년대비 26.8%의 수출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004년에도 20% 내외의 수출신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코스타리카)

6) 직물

- 내년도 경기회복 및 실질 소득 증가로 직물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나 중국 및 대만,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 진출 확대, 폴리에스터 직물에 대한 수출자율규제, 통관검사 강화 등은 수출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브라질)
- 대 과테말라 최대 수출품목으로 직물수출이 전체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음. 미국의 경기회복이 내년도 본격화되면 미국의 의류 소비가 증가, 한국계 봉제업체에 대한 오더가 소폭 증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의류 원부자재 수출도 다소 증가 예상(과테말라)
- 칠레의류제조업은 아시아산 수입완제품으로 인해 침체를 거듭해 왔으나 미국과의 FTA체결로 대부분 품목이 발효즉시 무관세로 수출되기 때문에 의류제조산업의 재기를 예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직물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칠레)

- 중국산 제품의 저가공세로 한국산 제품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현지생산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임. 현지생산에 필요한 고급 인조 섬유사 제품은 수출확대가 예상되나, 그외 제품은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콜롬비아)

7) 섬유제품

- 아시아산 섬유제품 수입통관 및 수입요건 강화로 바이어들의 한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기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산 섬유제품의 중국산에 대한 가격경쟁력 상실 확대로 수입 축소(멕시코)

8) 컴퓨터

- 브라질정부가 컴퓨터 보급 확대 및 밀수품 근절을 위해 컴퓨터에 대한 수입관세를 금년 1월부터 24%에서 16%로 인하시킴에 따라 컴퓨터에 대한 수입수요 확대되었으며 내년도에도 경기회복 및 실질소득 증가로 컴퓨터에 대한 수요 지속 확대(브라질)

9) 무선통신기기

- 2003년 극심한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무선통신 단말기는 현재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Telcel사의 2003년 GSM 시스템 도입과 함께 한국산 GSM 단말기 공급이 확대되면서 회복세를 찾고 있으며 아울러 2004년 경기회복과 휴대폰에 대한 수요 확대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성장률 기대됨 (멕시코)
- 현재 칠레의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제품이 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멕시코, 미국, 브라질 제품과 경쟁을 하고 있으나 삼성전자가 GSM 휴대폰 시장에 신규 진출하였으며,

FTA발효시 시장 점유율 크게 신장 예상 (칠레)

- 2003년 10월 PCS(GSM방식) 출시로 시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 CDMA방식 디지털휴대폰은 삼성만 공급이 가능했던데 비해 LG와 기타 제조업체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이 대폭 신장될 것으로 예상 (콜롬비아)

10) 반도체

- 브라질의 경우 반도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기회복 및 수출호조세 지속에 따라 반도체 수요 확대(브라질)

11) 가전제품

- 2003년 경기침체로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전제품은 200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소폭 회복되면서 칼라TV, 냉장고, 에어컨 등을 중심으로 내년 다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멕시코의 '최저수입가격제도'의 현실화 부족으로 일부품목의 가격경쟁력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멕시코)
- 삼성, LG 등 현지 주요판매법인의 제품판매는 늘어났으나 브라질 등 인근국 생산제품의 유입으로, 한국 수출제품은 오히려 줄어들었음. 2004년에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콜롬비아)

4. 수출 유망품목 추천

[멕시코]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무선통신기기(812)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요 확대와 GSM 단말기 공급시작으로 수출증가 기대	미국, 스웨덴
컴퓨터(813)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 확대와 한국산 컴퓨터 용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따른 수요 확대 전망	미국
반도체(831)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의 수출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반도체 수요 확대	일본
자동차(741) 및 자동차부품(742)	한국산 수출차종 확대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	일본, 유럽
플라스틱금형(7532)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다가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수요 확대로 전반적으로 수출확대 기대	일본, 중국

[브라질]

품목명(MTI코드)	추천사유	경쟁국
무선전화기	- 일반 무선전화기는 대부분 현지 생산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나 첨단 칼라 휴대폰 등의 경우 주로 수입을 통해 공급 - GSM 휴대폰 수요 지속 확대	핀란드, 미국, 일본
합성수지	- 경기회복에 따른 원부자재 수요 확대 - 합성수지 국내생산량 부족 - 수출용 원부자재 수요 확대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대만
화학기계	- 경기회복에 따른 시설재 수요 확대 - 화학제품 수출호조에 따른 투자 확대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플라스틱금형	- 경기회복에 따른 금형 수요 확대 - 금형은 주로 수입에 의해 공급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
컴퓨터	- 브라질정부의 컴퓨터 보급확대 정책에 따른 수요확대(금년초 컴퓨터 수입관세 인하효과 지속) - 경기회복 및 실질소득 증가로 컴퓨터 수요 확대	미국, 대만, 일본

[파나마]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발전기(8411)	○ '98년 민영화 이후 높은 전력가격 유지로 소형발전기 시장 수요 확대	미국, 독일
화장품(2275)	○ 한국산 제품 성가 제고로 고급품 위주의 시장 진출 유망	미국, 프랑스, 일본
자동차부품(7420)	○ 중남미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A/S 부품 수요 확대	대만, 중국
운반하역기계(7121)	○ 항만의 컨테이너 환적시설 증가에 따른 수요 증대	중국
보안장비(8141)	○ 현지 수요 증대 및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의 보안장비 중계무역량 증대	미국, 대만
의약품(2262)	○ 인도 등 경쟁국 비생산품을 중심으로 한국산의약품 진출 확대	미국, 인도
TFT-LCD 모니터(8134)	○ 현지 수요 증대 및 콜론자유무역지대 중계무역 활성화	대만
사무용 가구(529)	○ 현지 수요 증대 및 한국산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식 제고	캐나다, 대만

[콜롬비아]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보안장비(8214)	현지 치안의 악화로 인해 중급수준의 보안장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미국, 일본, 대만
무선통신기기(8121)	GSM방식 및 CDMA방식 제품이 2003년에 새로이 선보이면서 한국산 제품의 수출가능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국, 브라질
섬유기계(7211)	미국의 대 안데안특혜관세법(ATPDEA) 적용으로, 섬유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따른 섬유기계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독일, 일본, 미국
무기류(9701)	반군 토벌을 위한 군비증강이 이뤄지고 있어, 관련 군수물자 및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이 유망시됨.	미국, 브라질, 스페인
의약품(2262) 의료위생용품(9509)	다국적기업의 시장독점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건성 제품등록절차만 통과되면 우리제품이 가격경쟁력이 높아, 성장가능성이 높은 품목임.	미국, 인도, 독일

[칠레]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감시카메라(8214)	국산 보안장비(CCTV, DVR)의 품질우수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수요 증가되고 있음.	대만, 일본
자동차 부품(7420)	자동차 신차판매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교체부품 증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만, 중국
섬유기계(7211)	미국과의 FTA체결로 대부분 제조의류가 무관세 수출가능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 예상	스위스,이태리,미국,독일

[베네수엘라]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자동차부품(742)	- 대우차등 한국차가 현재 10만대 이상 운행중인 것으로 추산되며 '03년 하반기 부터 나타나고 있는 A/S용 부품에 대한 점진적 수요 회복세가 내년도에도 지속 될 전망	대만
핸드폰(812110)	- 베네수엘라 핸드폰 서비스 업체 Telcel 사 대상 제3세대 제품 및 저소득층 대상 저가품 등으로 지속 마케팅 활동 강화시 꾸준한 수출증대 가능시 됨	미국, 브라질, 유럽 등
잉크카트리지(8138)	- 최근 컴퓨터의 보급 확대에 따른 컴퓨터 프린터물 사용 확대로 무브랜드 generic제품 및 리필 제품 시장전망 양호	미국, 중국, 콜롬비아 등
DVDP(8215)	- 최근 VHS에서 DVD로 소비자 수요이전 추세이며 또한 복사CD 구입 용이	미국, 일본 등
1회용주사기	- 베네수엘라의 수입용 외환 배정대상 품목이며 특히 정부 조달수요 풍부함.	중국

[도미니카]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의약품(226200)	현지 등록여건 양호 및 품질, 가격경쟁력 양호	아르헨, 미국, 중국, 유럽
자동차부품(742000)	신·중고자동차 대수 증가로 수요 급증	미국, 대만, 중국
CCTV, 카메라 (821490)등 보안장비	최근 범죄율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보안 장비 수요 증가	미국, 대만, 중국
사무용 가구 -책상(524000) -의자(521000)	사무빌딩 증가로 인한 사무용 책상, 의자에 대한 수요 지속 증가	미국, 유럽
에어컨(824200) 및 그 부품	현지의 연중 열대기후로 인해 사무실, 가정용 수요다대	미국, 일본, 중국
기타 기계중 Hydraulic Cat (790100)	자동차 대수 증가에 따른 정비공장 증가로 자동차 정비용 승강 장치	미국
건설중장비(725190)	아국산 가격 및 품질경쟁력 우수	미국, 일본

[우루과이]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프린터잉크/ 카트리지(222200)	- 전량 수입에 의존, Refill 시장 급성장중	미국, 브라질, 중국
광학 렌즈(715210)	- 고품질 UV 렌즈 수요 확대 추세 - 중국산과 차별화 필요	미국, 브라질, 프랑스, 중국
경작기계(728100)	- 쌀 등 신상품 수출 호조 - 중소규모 유기농 기업에 대한 중소형 농기계 판매 가능	미국, 일본
TFT-LCD 모니터 (813400)	- LCD 모니터로의 트렌드 변화중 - 한국산의 품질 대비 가격저렴으로 관심 증가	미국, 중국, 대만
비디오 도어폰 (813410)	- 미국 고가 브랜드에 대한 대체 수요 큼 - 한국산의 품질 대비 가격저렴으로 관심 증가	미국, 스위스, 중국
지문인식기 (815510)	- 새로운 트렌드로 수요 형성중 - 고가 미국산에 대한 대체 수요 증가, 한국산에 대한 인식 높음.	미국, 일본, 대만
위조지폐판독기 (815510)	- 현지 제조업체 전무, 미국산 시장지배 - 우리나라 IT 기술수준에 대한 인지도 양호, 품질 대비 가격 저렴으로 한국산 수입 관심도 증가	미국, 일본

[코스타리카]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자동차부품(7420)	한국차량 보급률 확대에 따른 A/S 부품 수요 확대	대만, 미국
타이어(3203)	한국상품 품질인지도 제고 및 가격경쟁력 보유	미국, 코스타리카
합성수지(2140)	수요확대 및 한국상품 선호도 증가	미국, 브라질
의약품(2262)	수요확대 및 한국상품 품질인지도 증가	미국, 유럽
배터리(8352)	한국차량 보급확대 및 가격경쟁력 보유	미국

[아르헨티나]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EVA 고무(2150)	신발 생산용 원자재로서 수요전망을 수입에 의존, 금년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내년에도 신발 생산. 수출증가로 EVA수입수요 증가 전망	브라질, 미국
농기계	농기계 구입 투자 활발, 이에 따라 현재 농기계 생산업체들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미국, 브라질, 독일
컴퓨터 및 주변기기(8136)	컴퓨터 수요 회복으로 금년 2/4분기 판매는 전년도의 판매를 육박, 내년에도 노후 컴퓨터 대체 수요 지속 전망	대만, 미국, 일본
타이어코드(439200)	금년들어 아르헨티나내 타이어 생산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로 생산규모가 확장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타이어 원료로서의 타이어코드지 수요 증가 예상	브라질, 미국,
섬유 및 피혁가공기계 및 부품(721100/721400)	현지 의류 및 가죽제품에 대한 내수 및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기계 및 부품 수요 증가	대만, 이태리
건설중장비(7251)	중단됐던 건설업 활동이 회복세를 타 건설중장비 및 부품 수요 증가, 내년에도 주택 보급사업 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독일, 미국, 브라질

[과테말라]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자동차부품 (8490)	한국산 자동차수입 증가에 따라 부품 수요가 증가세이며 일반 범용부품의 경우에도 시장잠재력이 매우 큼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철강관(6141)	현지경기회복으로 건설부문이 활기를 띠 전망이어서 철강관등 철강제품 수요증가 전망	미국, 멕시코, 대만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기(847710)	현지 제조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 수요 증가	대만, 미국
건설장비 (7251)	건설경기 회복으로 건설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미국, 독일, 일본
전선, 케이블 (8544)	현지 전력 사정 취약 및 산업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 코스타리카

[페루]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섬유기계(7211)	- 미국의 안데안 특혜관세법(ATPDEA) 시행으로 페루의 섬유봉제 산업이 급성장하여 섬유기계류 수요 증가	대만, 이태리, 독일
모니터(8134)	- 페루 컴퓨터 보유 가정이 적지만 수요 증가 추세 - 중고 모니터 수요도 증가	미국, 중국, 일본
산업기계(72)	- 압출기, 사출기등 플라스틱 기계수요 증가 - 단순기계류 및 저가품 위주 수요	미국,이태리, 대만
자동차부품(7420)	- 필터, 플러그등 소모품 뿐만 아니라 엔진 등 주요부품 수요도 있음	대만, 일본
건설중장비(7251)	- 도저, 포크레인 등 건설중장비 중고 가격 경쟁력 있음 -중고의 경우 광산에서 사용하는 3루베 이상 대형 선호	미국
인쇄용지(2522)	- 우리나라제품 품질 우수성 인정	대만, 중국

5. 수출확대 전략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산 제품과의 차별화 시도

- 일반적으로 한국산 소비재는 중국, 대만을 비롯한 여타 아시아산 제품과의 차별화 부족으로 품질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브랜드 이미지 홍보, 고부가가치 품목개발 등을 통한 제품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멕시코)
- 중국 및 대만제품이 저가전략으로 기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품질제고뿐 아니라 가격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함 (칠레)

○ 지역별로 특화된 제품의 수출 확대 주력

- 멕시코는 H/W, S/W는 물론 SI 등 IT분야에 대한 수요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동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현지 정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수요발굴을 통한 수출확대 노력에 주력
- 브라질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 이상이 예상되고 있고 IT,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부품소재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으로 내년도 시장개척단, 전시회, 구매단 등의 경우에도 동 분야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
- 콜롬비아의 경우 완제품 시장은 중국산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보안장비, IT관련제품, 정밀기기 등에서 시장을 확대해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원부자재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공급이 부족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위주로 공략필요(콜롬비아)

○ 지방상권 개척 노력 확대

-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은 주로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한 동남 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주요 지방상권에 대한 마케팅 능력 확대 필요. (브라질)

- 도미니카 최대 지방박람회인 Expo-Cibao 및 Expo-Constitucion 참가를 통한 지방 상권 적극 공략 (도미니카공화국)

○ 한-칠레 FTA 비준 등 전략적 통상정책 구사

-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 지연으로 자동차, 가전 등 주력 수출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2003년 2월 EU와의 FTA발효로 칠레의 대EU수입선 전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2004년 미국과의 FTA발효시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 우려되고 있는 바, 한-칠레 FTA의 조속한 발효가 긴요함
- 이와 함께 칠레는 인근 중남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경제보완협정 등을 체결하여 미주대륙 국가 대부분과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향후 대 칠레 직접투자를 통한 중남미 인근국가 진출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대응책 마련(브라질)

- 브라질정부와 중남미 주요국간의 특혜관세협정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2005년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이를 위해 현지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함으로써 부품조달 등 시너지효과 배가 필요.

○ 지리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현지화 진출 강화

- 지리적 원격으로 인한 과도한 출장비와 낮은 인지도로 출장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 효과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사이버
화상 상담회 적극 개최 및 참가 (도미니카)

○ 지사화사업의 적극 참가 및 지원을 통한 유망상품 현지진출 강화

- IT 산업, 건축자재, 중소형 플랜트 등 현지 시장성이 높은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지사화사업 적극 참가 및 지원 (도미니카)

○ 플랜트·프로젝트 개발노력 강화 및 업체의 적극 참가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각국이 2004년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주택, 병원, 통신,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주재국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의 EDCF 자금지원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과테말라)
- 대 정부 정보망 및 아국내 관련기업을 연계하여 수출증대효과가
큰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기능 강화 및 국내관련 업체의
적극적 참가 (도미니카)

○ 입찰 등에 대비한 현지 에이전트 운영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는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발주
입찰이 중요하나 공공기관 입찰에 현지기업에게만 문호를 개방
하고 있어, 입찰참여시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해야함

○ 수출상품 및 투자진출 분야 다양화 (과테말라)

- 대 과테말라 섬유류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이상을 점하고 있고
이중 대부분은 대미 의류수출용 원부자재이어서 미국 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하므로 기존 봉제산업에 집중된 우리기업들의 투자진출
분야를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분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는 진출이 부진하나 향후 가능성이 높은 가전제품, 무선통신 기기 진출확대 등 수출상품 다양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함

-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은 자동차, TV, 가전제품, 휴대폰, 섬유 제품 등 일부품목이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상품의 다양화 정책이 필요 (칠레)

○ 대 아르헨티나 수출금융 재개 및 확대(아르헨티나)

- 2001년 12월 디폴트 선언이후 중단된 대 아르헨티나 수출보험 재개할 필요가 있음. 위험성을 고려 전면부보 불가시 부분부보방식 이라도 채택 절실 필요
- 기계류 수입 촉진을 위해 수입상 대상 대대적 홍보와 병행하여 중단된 전대금융(RF)을 재원 확충하여 신용한도 확대 필요 (과거 신용한도 1,500만불 → 5천만불선 확대)

○ 규격인증 협력 강화(아르헨티나)

- 대 아르헨티나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등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는 IRAM 규격 인증 획득이 필요한 바 한국의 KTL(산업기술시험원/2000년 MOU체결) 및 KSA(표준협회) 등과 K마크 및 KS마크 등 규격인증 협력 강화 및 상호 양허를 통해 수출장애요소 제거 노력 필요

CIS 지역

1. 수출여건

가. 낙관적 요인

- 러시아의 경제성장세 지속으로 인한 수입시장 규모 확대
 - 금년까지 5년 연속 고속 경제성장세
 - 내년도에도 큰 변수가 없는 한 경제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으로 제조업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시장도 지속 확대되고 있음
- 러시아의 WTO가입을 위한 법령 및 체제정비 지속
 - 경제활동의 투명성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대러 주력 수출품목과 러시아인들의 구매패턴 일치
 - 기존 대러수출을 이끌던 PET, 가전, 직물등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자동차, 휴대폰 등의 대러 수출 급증
 - 경제성장에 따라 자동차와 휴대폰의 판매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 주요 대기업의 브랜드가치가 워낙 높은데다가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호조세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유로화 평가절상으로 인한 한국제품 가격경쟁력 제고
- 우크라이나 경제성장, 내수증가 및 소비증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 우크라이나의 건설붐으로 인해 자국 산업생산성이 증가하는 관계로 수입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우즈베키스탄이 3%대의 안정적인 GDP 성장을 지속하며, 기계

설비 및 원자재를 포함한 제품의 수요 증대

- 또한, 2003년 10월 1일부로 수입계약 사전등록제를 철폐하였고, 10월 15일부로 환전자유화를 실시, 무역자유화 및 환전자유화 조치로 상당한 수입수요 증가 전망

나. 비관적 요인

- 러시아경제가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구조
 - 금년까지는 고유가로 인해 고성장을 보였으나, 이는 반대로 유가가 떨어질 경우 성장엔진을 잃어버리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나타냄.
 - 중동정세, 특히 이라크 정세가 안정되고 유가가 낮아질 경우 러시아의 구매력 급속히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푸틴정부의 개혁정책 지속시 경제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 끼칠 가능성
 - 철도부, Gazprom, UES 등 소위 자연독점기업 구조조정 필요 (WTO가입 협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해야할 입장)
 - 그러나 이들 자연독점기업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철도, 가스, 전기 독점 공급업체로서 구조개혁시 막대한 공공요금 인상 효과를 야기하게 되며 이는 정부의 물가정책 및 국민복지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수출 주력품목인 직물, 가전제품의 중국산 품질향상 및 가격 경쟁력확보에 따라 아국산 제품과의 경쟁 치열
- CIS 4개국(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 경제공동 구역에 조인함에 따라, 국산 제품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우즈베키스탄은 환율단일화가 진전되면서 공식환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수입관세 인상 및 수입상품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수입 수요 감퇴 초래
- 또한, 시장단속 강화(통관서류 비미시 운송 및 유통중인 수입상품 압수 및 개별 수입상에 의한 물품 반입에 대한 과세로 영세 수입상들을 포함한 수입업체들의 수입활동 위축

2. 수출 전망

가. 총괄표

(단위 : US\$백만, %)

지 역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CIS	1,679	2,292(36.5)	2,775(21.1)

나. 전망근거

1) 밝은 면

- 러시아의 경제성장세 지속으로 인한 수입시장 규모 확대
- 우크라이나 경제성장, 내수증가 및 소비증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 고조 및 투자진출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계설비, 원자재 수출 증가 전망

2) 어두운 면

- 러시아경제가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구조
-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인 직물, 가전제품의 중국산 품질향상 및 가격 경쟁력확보에 따라 국산 제품과의 경쟁 치열
- CIS 4개국(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 경제공동 구역에 조인함에 따라, 국산 제품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우즈베키스탄 공식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각종 관세 및 내국세 부담이 증가하고, 수입물가 상승 및 소비자 소비심리 위축을 초래
- 우즈베키스탄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3년 1월 1일부로 소비재의 우즈벡語 라벨링을 의무화하면서 수출업체들에게는 추가적인 예산 부담 초래

다. 종합의견

- 러시아는 최근 무디스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획득하는 등 1998년 모라토리움 이후 경제운영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이에 따라 대외교역규모도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도 연간 10%대 이상의 증가율 기록 전망
- 러시아의 수입증가를 주도하는 품목은 크게 보아 두 가지임.
 - 기계/설비류 : 자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설비 뿐만 아니라 노후설비 교체 수요도 상당하나 러시아의 기계제작산업이 자금/기술면에서 낙후되어 있어 수입의존도 큼.
 - 중산층용 소비제품 : 자동차,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등이 대표적인 제품임.
- 수입증가율이 큰 상기 두 제품군에서 한국제품이 품질 및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러수출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국제유가가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러시아 자체의 수입시장 규모 증가율이 금년도 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대러수출증가율은 금년도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금년 들어 대우크라이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CIS 4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이 공동경제구역

협약에 서명함에 따라, 한국산등 여타 국가로부터의 수입감소 효과 예상

- 유로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유럽제품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반면에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수출상승요인으로 작용됨
-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망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주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위한 첨단 설비제품들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는 2002년도보다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지난해 직물, 가전, 합성수지 등이 주도하였고, 금년에도 직물, 가전, 합성수지가 주도할 전망이나, 직물, 가전제품의 경우 원화 강세 및 중국 등과의 경쟁에 치열하여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합성수지의 경우 주재국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크게 신장될 전망
-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은 우즈베키스탄의 외환사정의 개선여부에 크게 달려 있는 상태. 9.11 테러사태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적극적인 대미 지원정책에 힘입어 상당한 규모의 외국자본 유입이 기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금 유입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현지의 투자진출한 한국업체들의 생산에 소요되는 부분품 및 원부자재가 수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투자진출 한국기업 들은 현재로서는 생산증대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
- 전체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대우자동차 (부품업체 포함)의 수입 부분품 가격 하락으로 판매 가격인하 및 매출 증대에 따라 조립생산용 부분품의 수입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2003년 2월말 IMF 조사단이 방문하여,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10월초 방문한 조사단은 긍정적으로

평가. 향후 차관제공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 영향 미칠 전망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금년 10월 1일부로 수입계약의 사전등록제를 폐지하였고, 10월 15일부로 경상거래에 대한 외환자유화를 시행함으로써 대외무역 및 외국인 투자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주재국 정부, 연구소, 언론, 바이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해당 무역관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재

3.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가. 총괄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산업기계(72)	53(-20.1)	61(15.1)	67(10)
자동차(741)	102(47.8)	249(144.4)	498(100)
선박(7461)	19(192.2)	4(-78.9)	4(0)
철강제품(61)	13(-12.0)	35(169.2)	70(100)
석유화학(21)	316(28.4)	419(32.5)	503(20)
정밀화학(22)	37(-3.3)	53.3(44.1)	64(20)
직물(43)	164(5.4)	201(22.8)	221(10)
섬유제품(44)	69(-10.1)	69(0)	76(10)
컴퓨터(813)	33(7.8)	25(-23.2)	25(0)
무선통신기기(812)	82(127.4)	207(152.0)	414(100)
반도체(831)	3(144.3)	2(-33.3)	2(0)
가전제품(82)	178(-6.3)	235(31.8)	282(20)

나. 총괄표 (B)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농산물(01)	141	155(9.7)	163(5.2)
플라스틱제품(31)	35	51(44.8)	66(29.4)
기초산업기계(71)	36	45(25.9)	50(11.1)

다.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1) 자동차

- 러시아 국산차량의 경우 품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외면을 사고 있음
-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차 판매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러시아인이 구입하기에는 고가
- 한국차의 경우 기아, 현대 양사 모두 러시아에서 조립생산을 하고 있는 등 적극적으로 러시아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작년 이후 판매가 급신장하고 있음. 따라서 내년도에도 두 자릿수 수출 성장을 기대됨
- 우크라이나 경기회복 및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른 수입산 차량 수요가 크게 증가 하고 있으며, 유럽산 차량의 유로화지불이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증가로 달러화로 지불하는 한국산 자동차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 자동수출 전망은 양호
- 최근 공식환율이 상승하여 대우차의 완성차 판매가격(달러화 기준)이 급등하여, 판매가 부진하고, 재고가 누적되고 있어 큰 폭의 수출 증가는 불투명

2) 무선통신기기

- 최근 수년간 러시아 이동통신시장은 매년 1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금년말 기준 무선통신 가입자수는 약 3,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2천만명이 증가한 수치임
- 인구 1.5억의 러시아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핸드폰 보급율은 아직 낮은 관계로 내년도에도 보급율은 지속 증가하겠지만 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내년도에도 한국산 무선통신기기의 판매는 호조를 보이겠지만 수출증가율은 금년도에 비해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이나 이동통신가입자 및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핸드폰, 모니터 등 IT관련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이동통신 가입자(약 20만명)와 인터넷 가입자 수가 (40만명) 점차 증가하면서 무선통신기기 수요도 증가. 잠재 수요는 막대하나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낮아 수출은 증가 곤란. 연간으로 볼 때는 수출은 5% 가량 감소 예상
- 대우유니텔이 우즈베키스탄의 제1 이동통신사업자로 성장하면서 (시장점유율 35%) 한국산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인지도 및 소비자 선호도 증가

3) 석유화학제품

- 우리나라의 대러 주력 수출품목인 PET레진의 경우 러시아 소비 시장 활황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수출 증가 기대됨

- 우크라이나의 내수 증가, 특히 건축경기 활성화, 식품 및 가공산업 증가에 따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격-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산 합성수지제품 수출 활기, 원화 강세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다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4) 가전제품

- 우리나라 제품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품군이나, 대러 수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품목으로 실제와 통계간 괴리가 큰 품목임
- 가전 3사의 높은 인지도, 월드컵 중계 홍보 등에 따라 한국산이 우크라이나 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으며, 소득 증대에 따른 가전기기 수요도 증가추세에 있어 가전기기 수출이 증가할 전망
- 특히, 삼성, LG, 대우 등 가전 3사의 칼라TV,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 소비자 인지도가 높고, 품질 및 디자인 등 제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금년 및 내년에도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가전제품 보급율이 낮아 가전기기의 잠재 수요는 많으나 실질 구매력을 갖춘 수요는 제한되어 있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소비재 수입억제 조치로 가전기기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재고가 바닥나고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수출이 다소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

4. 수출 유망품목 추천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식품가공기계 (7241)	○ 러시아 자체 기계제작산업 부진 ○ 한국산 기계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 ○ 러시아 식품산업 호황	독일, 이태리
무선전화기 (8121)	○ 소득증가로 인한 핸드폰 수요 증가	독일, 스웨덴, 핀란드, 미국, 대만
의료용전자기기 (8147)	○ 생활수준 향상으로 의료용품 신규 및 교체 수요 다대 ○ 바이어의 양호한 반응 ○ 자체 생산여력 부족	독일, 이태리, 덴마크, 미국
승용차 (7411)	○ 소득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	일본, 독일, 미국
자동차부품 (7420)	○ 한국 차량 판매 증가로 수요 증가 ○ 수입차량 판매 증가	독일, 일본, 미국
폴리프로필렌 (214004)	○ 식품 및 소비재 산업 활성화로 포장필름 수요 다대	독일, 대만, 중국
건설중장비 (7251)	○ 몇년간의 경제호조로 인해, 건설경기 매우 호조	독일, 일본, 미국
자동차 (741)	○ 유로화의 평가절상등으로 인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급상승	일본
가전기기 (82)	○ 가전 3사의 홍보결과 브랜드 인지도 급상승, 수요 증가	일본

5. 수출확대 전략

- CIS지역에서 개최되는 유망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 확대
 - 유력한 바이어들의 경우 유명 박람회에서 파트너를 발굴하는 경향이 강함
 - 현지의 제한된 상거래 정보 유통 매체로 인해 전문 전시회 참가는 거래선 발굴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전시회 정보를 지속적으로 UP-Dating하고, 유망 전시회의 경우 한국 관련 조합이나 업계에 홍보하여, 한국 기업이 참가하도록 유도
- 무역과 투자 병행 CIS지역 진출
 - 완제품 위주 수출은 수년내 한계 예상됨
 - 프로젝트 진출 재정 지원 : 일본 등에 대한 경쟁력 확보
- 우즈베키스탄 거점(에이전트) 확보
 - 체제전환기의 우즈베키스탄은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통신환경이 열악하여 단순 통신연락만으로 시장을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우즈베키스탄 현지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무역관을 지사로 활용하거나, 현지 에이전트를 두는 것이 필요.
- 국제입찰 참여
 -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들은 구매력이 취약한 반면, 상대적으로 정부 부처나 국영기업은 구매력이 풍부해서 정부나 국영기업이 실시하는 국제입찰의 참여는 시장진출에 효과적
 - 정부의 국제입찰 정보의 조기 수집 및 전파를 통해 한국기업의 입찰 참여를 유도

중동 지역

1. 수출여건

가. 낙관적 요인

- 이라크 전후 복구를 위한 대규모 자금투입
 - 이라크 내에서는 2004년부터 종전후 재건을 위하여 최소 270억불, 최대 560억불의 전후복구자금이 투입될 전망으로 각종 공사 및 조달 프로젝트 참가에 따른 수출기회 확대
 - 이라크의 대규모 발주 및 자금투입으로 인한 주변국의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여 수입수요 확대
- 중동 각국가들도 안보위협 제거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소비와 투자 활성화 전망
 - 민간차원의 무역, 투자의 활성화
 - 정부의 각종 프로젝트 지속 및 확대수행
 - . 쿠웨이트 : 70억불 규모의 원유개발 프로젝트 수행
 - . 리비아, 사우디, UAE : 석유화학, 발전소, 담수화, 통신 등 각종 대형프로젝트 발주 증가 예상
 - . 이란 : 제 3차 경제개발 종년에 즈음 잔여프로젝트의 적극발주
 - . 시리아 : 민간은행 설립허용, 수출입허가제 연계제도 폐지 등 지속적인 무역환경 개선
- 중동 산유국들의 탈석유화, 공업화 정책으로 인한 산업설비, 기계 플랜트 등의 수입확대
- 중동 전역에 걸쳐 한국상품 인지도 향상
 -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등 전기전자제품의 적극적인 광고 및 수출확대에 따른 한국상품 인지도 향상으로 시장점유율 계속 확대

- 유로화, 달러화의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 유로화 및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 유럽 및 미국산 제품대비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확대에 유리한 영향

나. 비관적 요인

- 유가안정 및 OPEC 뉴쿼타에 따른 감산으로 산유국의 재정수입 감소전망
 - 2003년도는 고유가 행진으로 인한 재정수입증가로 많은 프로젝트 발주가 이루어졌으나 2004년 유가가 27-29불대로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라크의 재건을 위한 석유증산시 유가의 하락 불가피
 - 이에 따른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수입 감소로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될 가능성 상존
- 이라크의 치안 및 정정불안 지속
 - 이라크의 치안이 계속 불안하고 내전이나 내분이 발생할 경우 이라크는 물론 중동전역에 걸쳐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 위축
-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조치 및 이란의 보-혁갈등으로 인한 이란 시장의 혼란
 - 중동 최대의 시장인 이란에 미국이 핵개발 문제를 빌미로 경제 제재조치를 강행할 경우 한국상품의 수출확대에 지장초래
 - 특히 이란내 보수 및 혁신 세력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도 정정불안으로 수출에 악영향
- 중국, 터키, 동남아등 후발개도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 중동시장에서 경공업, 중공업제품을 막론하고 중국, 터키,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 국가산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걸림돌 작용

- 이- 팔, 시리아 사태등 중동평화 로드맵의 지연으로 인한 주변국의 경기 활성화 지장초래

2. 수출 전망

가. 총괄표

(단위 : US\$백만, %)

지 역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중 동	7,498	8,221(9.6)	8,798(7.0)

나. 전망근거

1) 밝은 면

- 이라크 전후 특수
 - 이라크 내에서는 2004년부터 종전후 재건을 위하여 최소 270억불, 최대 560억불의 전후복구자금이 투입될 전망으로 각종 공사 및 조달 프로젝트 참가에 따른 수출기회 확대
 - 치안이 안정될 경우 이라크 민간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로 수입수요 확대 (자동차, 휴대폰, 각종 기계류, 일반소비제품등)
- 이라크 종전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및 중동 산유국들의 탈석유화, 공업화 정책으로 인한 산업설비, 기계플랜트 등의 수입확대
- 중동 전역에 걸쳐 한국상품 인지도 향상
 -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등의 활발한 수출에 힘입어 중동 전역에 걸쳐 한국상품의 인지도 향상으로 인한 수출기회 확대
- 유로화, 엔화의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 유로화 및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 유럽 및 미국산

제품대비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확대에 유리한 영향

2) 어두운 면

- 유가안정 및 OPEC 뉴쿼타에 따른 감산으로 금년대비 산유국의 재정수입 감소전망
 -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각종 프로젝트 및 기계류 수입감소 가능성 상존
- 이라크의 안전 및 정정불안 지속 가능성 상존
 - 치안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적극적인 시장개척의 어려움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특히 이라크 전후복구 프로젝트가 자금 공여국에 유리한 수주 환경이 지속될 경우 대 이라크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 상존
- 중국 및 개발도상국가 제품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로 저가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수출에 지장
 - 특히 원화강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에 심각한 영향 예상
-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박의 수주가 급감하여 전체적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다. 종합의견

- 이라크에서는 2004년부터 종전후 재건을 위하여 최소 270억불, 최대 560억불의 전후복구자금이 투입될 전망으로 각종 공사 및 조달 프로젝트 참가와 인근국의 경기활성화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특히 안보위협 제거등으로 중동 전역의 투자 및 비즈니스 심리가

회복되어 한국산 제품의 수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며 중동지역에 걸쳐 휴대폰, 가전제품, 자동차등의 품목들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산업설비관련 각종 기계류도 수출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전반적인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유가의 하향안정화에 따른 중동산유국의 재정수입감소, 이라크의 치안불안 지속, 이-팔, 시리아간의 분쟁악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기본적으로 저가시장인 중동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악화로 대폭적인 수출에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내년도 수출은 금년보다 7% 정도 증가한 8,798백만불이 될 것으로 전망됨

3.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가. 총괄표 (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산업기계(72)	302.0(-13.8)	269.8(-10.9)	323.2(19.8)
자동차(741)	1,201.2(-4.9)	988.8(-9.1)	1,313.3(32.8)
선박(7461)	159.7(130.5)	525.7(229.2)	50(-90.5)
철강제품(61)	444.1(16.7)	709.6(59.8)	773.6(9.0)
석유화학(21)	286.8(2.7)	435.0(51.7)	418.7(-3.8)
정밀화학(22)	76.5(4.3)	112(46.4)	117.1(4.6)
직물(43)	785.8(-6.8)	665.0(-15.4)	567.9(-14.6)
섬유제품(44)	164.9(-25.0)	200.0(21.3)	213.1(6.6)
컴퓨터(813)	165.3(48.7)	135.7(-17.9)	121.6(-10.4)
무선통신기기(812)	781.8(39.2)	1,004.8(28.5)	1,435.6(42.9)
반도체(831)	6.0(12.5)	9.7(61.7)	12.5(28.9)
가전제품(82)	929.3(19.7)	990.9(6.6)	1,112.9(12.3)

주) 우리나라 12대 수출 주력 품목

나. 총괄표 (B)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자동차부품 (742)	359(48.0)	470.8(21.6)	558.4(18.6)
타이어(3203)	175(-8.4)	216.9(10.1)	227.7(5.0)
연초류(0154)	47(80.9)	95.7(103.6)	159.6(66.8)

다.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1) 산업용 기계

- 중동 산유국들의 탈석유화, 공업화 정책으로 인한 산업용 기계류의 수입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용 기계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기존 기계류 수입이 많았던 UAE 등에서 산업용 기계류 등의 대여업이 성행, 중국 및 대만제품의 추격으로 인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산업용 기계수요가 기본적으로 확대되어 전반적으로는 20%의 수출 신장세를 거양할 것으로 전망

2) 자동차

- 국내 메이커 4사가 금년 11월중 이라크 시장진출을 위한 딜러십 계약을 완료하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중고차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인하여 수출이 대폭 확대전망
- 이란의 무쏘 자동차 및 현대 미니버스의 현지 조립 생산량 확대 가능성 및 2003. 9.1일부로 완성차에 대한 전면 수입허가 허용으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 단, GM대우의 씨에로 및 마티즈에 대한 CKD 조립 Kit 공급중단

결정에 따른 수출차질 심화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 전반적으로는 30% 이상의 수출신장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3) 선박

- 2003년 현대중공업이 UAE에서 수주한 5척의 물량중 첫 인도분이 2004년도말로 예상되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작년 3대의 유조선 인도가 이루어졌던 이란에서 2004년중 선박 인도 물량 전무로 수출이 대폭 감소할 예정임

4) 철강제품

- 이란내 현지의 자동차 조립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자동차용 강판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중동지역의 건축, 건설경기 활황으로 인한 철강제품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출물량 공급제한으로 인한 수출확대에 한계 노정

5) 석유화학, 정밀화학제품

- 이란의 제 3차 경제개발 계획추진등 중동 각국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 그러나 중동의 석유화학 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석유화학 제품의 현지 생산능력 확대 및 주재국 정부의 수입대체 산업육성 의지 강화, 경쟁국 제품의 진출확대로 수출이 전년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

6) 직물

- 과거 수출주종 품목이었던 직물류는 차도르 원단과 같은 특수 직물을 제외한 일반 폴리에스터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 동남아산 제품에

계속 밀리고 있어 수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7) 섬유제품

- 의류, 악세사리, 섬유부자재등은 중국, 터키, 동남아산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디자인의 차별화로 인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 및 이란의 섬유류 수입자유화 조치 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8) 컴퓨터

- 중동지역의 국가들의 정보화 수요 고조에 의한 컴퓨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대산산 조립 컴퓨터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9) 무선통신기기

- 삼성, LG 핸드폰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및 광고 확대로 중동 시장내 호평 지속으로 수출이 매년 대폭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삼성 핸드폰의 경우 중동의 많은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 내년도에도 대폭적인 수출신장이 예상됨

10) 반도체

- 중동지역의 경우 제조업의 미발달로 인한 반도체 수입이 미비

11) 가전제품

- 한국산 주요 가전제품의 현지시장지배력 가속화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로 자동차, 핸드폰과 함께 가전제품이 중동시장의 3대 주요 수출품목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일반 가전제품의 경우 중국산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화 전략이 주효하여 지속적으로 중동지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12) 자동차부품

- 신규 및 중고자동차의 대폭적인 수출확대로 인하여 자동차 부품도 대폭적인 수출신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13) 타이어

- 국산 타이어도 중동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서 우수하여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수출물량 부족으로 대폭적인 수출신장에는 한계 노정

14) 연초류

- 중동전역에 걸쳐 국산 담배류는 현지인들의 입맛에 적합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있음

4. 수출확대 전략

가. 이라크 수출확대전략

☐ 정부. 공공부문

① 관급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응찰

- 사담 후세인 정권시절에는 비우호국으로 분류되어 한국업체 명의의 입찰 참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었으나 전후에는 아

무런 제약이 없음. 대금지급 조건 등 적극적인 응찰을 주저케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며 향후 주요 재건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러한 입찰을 통해서 발주될 것인 만큼 적극적인 참가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② 현지기업과 연대

- 이라크 과도정부나 CPA 공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 발주시 이라크 국민정서를 감안한 현지기업 우대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이라크 조달시장 참가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라크 현지기업과의 연대 불가피. 따라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직접 추진보다 현지 업체들과 파트너쉽을 갖추어 자재나 물품을 공급하는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임.

③ 이라크기업들은 대부분 외국업체로부터 자재나 기술을 공급 받아서 입찰에 참가하므로 평소 이들 업체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외국 파트너가 자금 여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긴급발주에 대비하여 자사 물품을 미리 수입하도록 설득하거나 이라크기업과 공동으로 프로포잘을 작성하여 입찰실시 예상 기관에 제출하려는 공동노력도 필요함.

④ 이라크 구매의 한 축을 형성하는 주둔 미군용 조달의 경우도 현지 유력기업을 통한 수의계약이 많아 유력 현지 거래선 확보가 이라크 공공시장 진출의 관건

⑤ 응찰자격 배제시 적극 대응

- 입찰서에 한국기업의 응찰자격을 배제한다고 적시 되었을 경우 현지 에이전트(파트너), 대사관 및 KOTRA 무역관이 공동 노력을 펼 필요가 있음. 관행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갖고 설득하면 응찰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편임.

⑥ 현지인맥 구축

- 각 조달기관의 조달업무에 관여하는 인사들과의 인맥 구축
(사전 발주정보 수집, 해당분야 현지유력기업 알선 등)

□ 민간 부문

① 적극적인 초기 진출노력

- 현재 치안불안을 이유로 대부분 국내기업 관망자세를 보이거나
현지에 거점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진출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치안에 유의하면서도 적극적인 진출자세 필요

② 통신보다는 面 對 面

- 전후 6개월이 지나도록 통신시설 복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을 통한 접촉 자체가 안되는 것이 태반. 더욱이 전후
새롭게 민간 비즈니스에 뛰어들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
출장을 시행하여 직접 면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서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전후 이라크인의 출국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현지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중요

③ 거래에 앞서 신뢰감 형성이 먼저

- 전후 치안불안에 따른 상호 불신풍조 만연. 따라서 거래선
물색시 자본력보다는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지를 가장 우선시 함

④ 일본산을 경쟁상대로 설정한 브랜드 포지셔닝

- 이라크 시장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대기업조차 '이라크인들은
모두 구매력이 약하다'라는 단일 잣대에 의거하여 중저가형
모델, 요르단 등 인근지 조립품 위주로 공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한국제품'을 '일본제품'의 대체품으로 간주하고 있음에 따라
저가모델 일색의 제품 Selection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식을 선도하는 고소득층 겨냥의 프리미엄 제품,
순수 'Made in Korea' 제품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⑤ 가능성있는 바이어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자세

- 수십년간 국가주도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갑자기 민간경제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춘 바이어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 열의는 높지만 아이템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확실히 정해놓은 아이템이 없는 경우도 태반. 이들 바이어들이 나중에 언젠가 Big 바이어로 자랄 것이므로 업신 여기기보다는 가르쳐가면서 함께 커나가는 자세 필요

⑥ 제품별 판매확대 전략수립

- 단타 위주 바이어의 경우 대규모 물량소화 가능하나 장기 거래 불투명한 반면 중장기 유력거래선의 경우 단기물량은 적으나 지속적 거래 가능하여 자사 제품의 성격에 따라 거래선과의 공동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⑦ 중개상권 변화에 능동적 대처

- 전쟁직후 세관행정 미비 및 혼란기를 틈타 인근국 중개무역상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했었으나 최근 직교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수입품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직교역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 수입상품의 경유지(원산지) 판도변화

.전쟁 전 : 시리아, 터키, 이집트, 요르단 강세

.전쟁직후 : 요르단, 쿠웨이트, 터키, 두바이 강세

.최근추세 : 직교역 선호, 요르단/쿠웨이트 의존도 감소

.중장기 : 저관세 개방시장 이라크 -> 이란, 요르단, 시리아
역중개무역

- 직교역시 중개상 마진을 줄일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아직 대 이라크 직거래선이 없는 국내업체일지라도 인근국 바이어에게 이라크 시장 관할권을 제공하는데는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예) 최근 이라크 시장에 다녀간 직물업체나 위성 방송수신기 업체들의 경우 두바이 중계상에게는 적자 수출하였으나 이라크 직수출시 마진을 확보한 가격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음.

⑧ 이슬람 시아 성지 등 관광자원 연계상품에 주목

- 이슬람 시아파의 성지인 이라크 남부 카르발라지역이 개방됨으로서 연 2백만명이상의 이란 순례객 방문이 예상되어 담요, 생수공장, 가전제품 등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바빌론 등 구약성서상의 유적지 연계상품 개발도 고려해 볼 만함.

나. 기타국가 진출전략

□ 일반상품분야

○ 현지시장에 맞는 저가형 상품개발

- 중동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저가시장으로 일반상품의 경우 중국 동남아 국가산과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점을 감안 기존제품을 중국, 동남아시아등에서 생산공급하는 유연성 필요

○ 각국의 산업구조조정/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 적극 활용

- 탈 석유화 및 산업화 정책상 수요가 크고, 저관세 등 수입이 용이한 중소형 기계, 플랜트 등 제조설비, 산업용원부자재, 화학 원료등의 수출확대에 주력

○ 현지 세일즈출장을 통한 대면 접촉 강화

- 현지 상관습상 대면접촉 중시(가족관계 중시 전통)
- 따라서 출장 등을 통한 상호방문 등 지속적 접촉과 상호신뢰 구축 필요

○ 에이전트의 적극적인 활용

- UAE등 대부분의 중동지역은 외국회사의 직접영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입찰 품목의 경우 90% 이상이 현지 업체만 응찰하도록 되어 있어 에이전트의 활용이 필수적임

○ 현지 특성에 맞는 탄력적 마케팅전략 수립

- 수출보험을 활용한 좀 더 탄력적인 대금결제 조건 제시

□ 공공입찰,플랜트 분야

1) 민간기업 측면

○ 현지 국제입찰 정보 수집확대 방안 강구

- 현지 주요 정보원(신문, 인터넷 등) 활용 및 유력 에이전트와의 제휴를 통한 국제입찰정보 수집 확대 필요

○ 현지 국제입찰 수요 예측을 통한 사전 수주방안 강구

- 각국의 산업정책,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철저 분석을 통한 향후 국제입찰 수요 예측 및 이에 대응한 사전 수주방안 마련

○ 현지 국제입찰 수행능력 보유업체(Vendor 등록업체)의

제휴를 통한 제한경쟁 입찰 참여 루트 확보

○ 현지 정부의 현지화 규정에 대응방안 수립

- 국제입찰 수주시에 일정비율을 현지 제품으로 조달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현지 유력업체와의 공동참여 추진
- 단순제품의 현지조달을 통한 응찰가격 최소화 전략 수립

2) 정부, 유관기관 측면

○ 금융지원 확대

- 중동의 주요 국제입찰 프로젝트가 계약자에 의한 구매자 금융 (Buyer's Credit) 재원조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 아국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 주요 프로젝트에 국내업체들간의 수주경쟁이 치열함을 감안, 국내업체들간의 과당경쟁 방지를 통한 적정수익을 확보방안 시급

○ 양국간 교류확대를 통한 수주확대 지원

- 현지 주요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교류관계 구축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내업체의 기술력 부각을 통한 국내업체의 수주확대 기반 구축

아프리카 지역

1. 수출전망

가. 낙관적 요인

- 한국상품 구매선호도 증가
 - 휴대폰, 자동차, 가전제품등의 수출호조 및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현지소비자들의 한국제품 구매선호도 증가
- 나이베리아의 선박수출을 제외한 아프리카 수출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등의 정치안정을 통한 경제개혁 조치 강화
 - Obasanjo대통령이 이끄는 제2차 문민정부(2003. 5. - 2007. 5)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외채 Rescheduling 합의 등 서방국가의 경제지원 확대(나이지리아)
 - 지난해말(2002.12월)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케냐는 Kibaki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신정부의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투자 및 소비증가 (케냐)
 - > 이에 따라 IMF, World Bank 등 원조가 내년부터 재개 될 것으로 예상
- 미국 및 국제기구의 활발한 원조
 - 아프리카지역의 상대적인 정치안정으로 AGOA(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를 비롯한 세계은행, IMF의 대아프리카 원조 활발 예상
- 정부의 각종 기관에서 프로젝트 다수 발주 예상
 - 전력공사(NEPA), 전화공사(NITEL), 석유공사(NNPC), 가스공사

(NLNG) 등 정부출자회사의 민영화 추진과 ROT(Rehabilitation, Operation, Transfer) 공사발주 다대 예상 (나이지리아)

- 내년도 대통령 선거승리를 위해 집권당에서 경기활성화 정책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인한 경기활성화예상(남아공)

나. 비관적 요인

- 내전 및 정정불안등 요인 상존
 - 라이베리아, 수단, 짐바브웨등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는 내전으로 인한 정정불안 요인을 안고 있어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국제사기, 풍토병 HIV/AIDS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 국제사기 비즈니스맨들이 많다는 오명과 말라리아 등 풍토병, HIV/AIDS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로 국제사회의 불모지로 계속 남아있음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
 - 나이지리아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금지 및 제한, 수입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
- 1차산품의 국제시세 및 기후에 종속되는 취약한 경제구조
 - 석유를 제외한 아프리카 주요 수출품은 금, 다이아몬드 등 광물자원과 코코아, 커피, 홍차등 농산물로 국제시세 및 기후에 종속되어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로 안정적인 경제개혁추진에 걸림돌

2. 수출전망

가. 총괄표

(단위 : US\$백만, %)

지역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아프리카	2,654	3,422(28.9)	3,212(△6.1)

나. 전망근거

1) 밝은 면

-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인 선박 발주 예상
 -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이 나이지리아(발주처 : Nigeria LNG 사)로부터 기수주한 LNG Carrier 8척중 내년도 하반기에는 1척이 인도될 예정(1척당 가격 : 1억5천만불 - 1억8천만불)
 - 특히 유럽에서 수주한 컨테이너선, LNG 선등이 라이베리아를 통하여 인도되어 아프리카 전체수출의 약반정도를 차지
- 한국산 제품의 전반적인 인지도 및 구매선호도 증가
 - 월드컵 개최로 인한 국가이미지 제고, 가전제품, 핸드폰, 자동차 등의 높은 품질로 인한 인지도 상승으로 수출 증가예상
- 유럽산 대비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
 - 남아공화 환율강세, 유로화 강세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되어 한국산 제품의 수요 증가
- 나이지리아의 저질 모조품 단속
 - 국제시장에서 “저질품목의 전시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나이지리아 품질관리청(SON)의 권한 및 활동 강화로 중국, 인도 등 후발 경쟁국산 저급, 가짜제품(The Fake)의 유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정상적 고급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2) 어두운 면

- 외환부족과 환율의 급격한 변동
 - 만성적인 외환부족과 금융시스템의 후진성으로 환율이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급격히 변동하고 있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무차별 공세
 -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후발개도국은 타이어, 콘돔 등 고무 제품은 물론 화학제품 의류, 식물류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무차별로 시장을 공략, 한국산 소비제품의 수출에 막대한 지장 초래
- 정정불안, 풍토병, 무역사기등의 오명으로 국내기업의 시장개척 의지 저조

다. 종합의견

- 2004년 대 아프리카 수출은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구매분위기로 금년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 예상
- 특히 선박의 지속적인 수주 및 인도로 아프리카 수출에 인차가 되고 있으며, 핸드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나이지리아, 케냐등은 정치안정에 힘입어 경제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산 제품의 수출 기회 확대

-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내전등으로 정정이 불안한 나라가 많으며 만성적인 외화부족, 후진적인 금융시스템 등으로 환율이 불안하여 우리나라 상품의 대폭적인 수출확대에 걸림돌로 작용됨으로써 내년도 수출은 금년대비 6.5% 증가하는 3,414백만불에 그칠 전망이다

3. 주요 수출품목별 전망

가. 총괄표(A)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추정)	2004(전망)
산업기계(72)	40.0(-19.7)	57.1(42.8)	71.6(25.4)
자동차((74)	89.9(-25.8)	179.6(99.8)	193.6(7.8)
선박(7461)	1,556(-1.4)	1,492.6(-4.0)	1,350(9.6)
철강제품(61)	39.0(-32.5)	60.0(53.8)	69.6(16.0)
석유화학(21)	229.1(0.7)	300.3(31.1)	354.3(18.0)
정밀화학(22)	42.9(-5.1)	55.0(28.2)	61.8(12.4)
직물(43)	176.7(5.3)	199.0(12.6)	184.1(-7.5)
섬유제품(44)	35.4(8.7)	45.8(29.4)	49.8(8.7)
컴퓨터(813)	15.4(6.9)	24.7(60.4)	28.6(15.8)
무선통신기기(812)	58.4(63.1)	83.3(42.6)	104.6(25.6)
반도체(831)	1.2(-26.0)	0.7(-41.6)	0.8(14.3)
가전제품(82)	119.4(15.1)	122.5(2.6)	131.8(7.6)

나. 총괄표(B)

(단위 : US\$백만, %)

품목명(MTI코드)	2002	2003 (추정)	2004 (전망)
타이어(3203)	22(-11.4)	29(31.8)	34(17.2)
자동차부품(742)	28(-5.3)	33(17.9)	37(12.1)

다. 주요품목별 수출전망 근거

1) 산업기계

- 정치가 안정된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등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제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아국 산업기계 수출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실업율이 높은 아프리카 각국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초기 투자자금이 적게 소요되는 중소형 산업기계들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화장지설비, 플라스틱사출기, 밧데리 설비, 자동차 필터설비 등

2) 자동차

- 2004년도 자동차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국산 자동차의 인지도 상승, 남아공 환율의 초강세로 인한 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자동차 수출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단, 2003년도에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 수출차량이 현지시장에서 다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어 2004년도 자동차 수출은 금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칠 예정임

3) 선박

- 나이지리아의 2001년 LNG Carrier 입찰에 아국 H 및 D 사가 각각 7척 및 4척을 수주, 2002년 2척, 2003년 1척을 건조 인도 (1월 29일자, 도착지 : 버뮤다)하였으며, 잔여선박은 2004년 하반기 인도 예정이며,

- 또한 나이지리아에서 2003년 상반기에 실시한 LNG Carrier 6척 국제입찰에서 아국 D사(선주 : 노르웨이 Bergesen사)가 4척 및 S사(선주 : NYK + MOL사)가 2척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조만간 계약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수주 증가로 아프리카 수출의 견인차 역할 수행

4) 철강제품

- 나이지리아는 저가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철강은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동구산 저품질 저가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있어 한국산 제품의 대폭적인 수출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일부 외국계회사의 고품질 정책에 따른 High Quality 철강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대한 공급과 최근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가 나이지리아, 케냐등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나이지리아의 6억불 상당의 가스처리 공장 건설)를 수주하고 있어 동 프로젝트용으로 국내산 철강제품이 수출되는등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5) 석유화학, 정밀화학

- 아프리카 각국의 경공업 생필품 제조업 집중 투자로 국내산 화학제품등이 대폭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박 수출과 함께 아프리카 수출의 2대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단, 한국산 합성수지의 주종수출품목은 쇼핑백, 필름, 옷걸이, 물통 및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및 PVC등인데 남아공, 중동 및 브라질의 값싼 합성수지 대량 유입으로 수출증가율은 감소될 전망이다

6) 직물 및 섬유제품

- 우리나라의 자수직물 (Embroidery & Lace Fabric)은 현지인들의 기호 및 가격경쟁력으로 현지 자수직물시장의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가장 수요가 많은 기간은 크리스마스, 이슬람종교 등 종교축제일을 앞두고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요즈음은 특별한 구매시즌없이 사계절 판매가 호조요인으로 작용
- 특히 아국 자수직물은 유럽산 대비 가격 및 품질에 있어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서 현지바이어들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업체로부터 견본을 받아 우리 한국업체들에게 제작을 의뢰하고 있는 등 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들어 중국산등 저가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시장을 잠식당해 내년도 수출은 금년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전망됨

8) 컴퓨터

- 아프리카의 경제개발에 따른 컴퓨터의 수요도 많이 늘고 있으나 중국, 대만등 저가의 조립제품들이 현지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아프리카 전역에 국산 전자제품의 성가가 높아지면서 꾸준히 컴퓨터의 수출도 증가예상

9) 무선통신기기

- 아프리카 핸드폰 시장의 최대 시장점유율 제품은 NOKIA 이나 색상 및 기능의 다양성이 결여되고 통화 음질이 좋지 않고 크기가

너무 크다는 소비자들의 지적과 함께 최근 2-3년 사이에 아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경제가 발전하면서 아프리카 전역에 핸드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국산 핸드폰의 수출이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10)반도체

- 현지 제조업의 미발달로 반도체 수입이 미미함

11) 가전제품

- 저가시장으로 분류되는 아프리카에서 정치 안정화에 따른 투자 및 소비회복으로 가전제품의 수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일반 가전제품의 경우 중국, 동남아 국가산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수출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대형냉장고, 프로젝션 TV등 고급 가전제품의 수출호조로 앞으로 지속적인 수출증가 예상

12)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 아프리카 지역의 자동차 수출 확대에 따라 관련 제품인 부품 및 타이어도 수출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4. 수출 확대 전략

- 고품질 이미지의 극대화
 - 후발개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인한 시장점유율 상실 대비, 지속적인 품질고급화와 브랜드 개발 강화를 통해 후발개도국

제품과의 이미지 차별화 필요 (예 : 자수직물)

- 판매호조상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강화
 - 한국산 자동차, 무선통신 기기, 전기·전자제품 등의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과감한 현지 A/S망을 확충하는 등 소비자들의 만족을 배가시켜 소비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여 한국상품에 대한 수요 붐 유지
(예 : 자동차, 무선통신 기기, 가전제품 등)
- 현지 합작투자 진출 증대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수입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현지 합작투자 진출 증대가 필요함
(예 : 노동집약 제조산업)
- 기존관념을 타파한 틈새시장 발굴 강화
 - 현재의 보완시장이라는 기존관념을 타파하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
(예 : 철강제품, 합성수지, 고가 휴대폰 시장)
-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
 - 원거리 및 무역사기등으로 거래환경이 타대륙에 비해 열악하지만 新시장 개척을 위하여 국내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 필요